



CONTENTS

04 • 권두언

성공적인 민선 6기 충남 도정을 기대하며
| 이정만

08 • 특집 |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민선 5기 도정기조 유지하되, 정의(正義) 가치 실현할 터 | 충청남도
시민 중심의 섬김 시정 구현으로 행복한 안심 도시 건설 | 천안시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오는 도시만들기 앞장 | 공주시
자손만대까지 길이 살고 싶은 도시로! | 보령시
민선6기 새로운 시작, 시민이 행복한 아산 | 아산시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 서산시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바로 '논산' | 논산시
인구 10 만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건설에 매진 | 계룡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 당진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금산발전 로드맵 완성할 터! | 금산군
군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행복한 부여 건설 | 부여군
서천군 발전의 50년 기틀을 다지는 주춧돌이 되겠다! | 서천군
'청양군민 만족시대' 열어가겠다! | 청양군
'힘찬 도약 희망 흥성' 건설에 적극 나서 | 홍성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 예산군
살기 좋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태안' | 태안군

68 • 충남논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 고승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방안
| 장효안

82 • 충남 마을

충남의 Cdor Village? 계룡 삼채피망청정마을!
| 정봉희

90 • 열린마당

아우내(伊川) 시장의 유래와 이동 과정 소고
| 신상구

96 • 해외리포트

포르투갈레그리: 주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 강현수

104 • 상생+협력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구축에 관한 소고
| 윤종철

114 • 오피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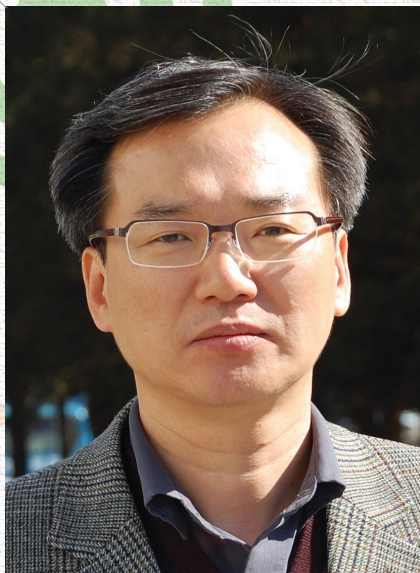
남과 비교 않는 게 행복의 지름길 | 권오덕
민선 5기 충남도와 민선 6기 정책에 대한 제언
| 박태구

119 • 충남 소식

121 • 연구원 소식

125 • 충남 문화유산

계룡 사계고택



이정만 |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성공적인 민선 6기 충남 도정을 기대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인 충남 건설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져주길

6·4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다시 받았다. 새로운 각오로 재출범하는 안희정 민선 6기 충남 도정이 지난 4년간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도정 비전과 약속을 잘 실천하여 행복한 충남, 활기찬 충남을 만들어주길 기원한다. 충남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풀어가야 할 많은 대내외적 난제도 함께 안고 있다. 차제에 성공적인 민선 6기 충남 도정을 기원하며 도

정 수행 과정에서 새겨주었으면 하는 원칙적인 사항 몇 가지를 당부해보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설계할 때 그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주었으면 한다. 모든 제도나 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제도나 정책 구현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성과관리에 있어서 엄정한 직무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부서별 임무나 과업이 적정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그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융복합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융복합 과제의 발굴과 함께 관련 부서 간의 권한 및 소통 체계의 재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선행 조건은 정책 실행 이전이나 실행 단계에서 병행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정책 수단이 실행되더라도 의도한 정책 목적을 얻어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선행 조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설계된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서 겹돌며 그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아 왔다. 각종의 시민참여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공무원들의 인식이 뒤따르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도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역량 있는 지역 일꾼이나 마을 공동체의 육성에 대한 고민 없이 공모 사업 지원에 치중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안희정 민선 6기 충남 도정은 이제 도민들이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로 화답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한 단계 더 제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과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진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종 도정 성과 평가에서도 정책이나 사업의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의도했던 성과를 얼마나 실제로 얻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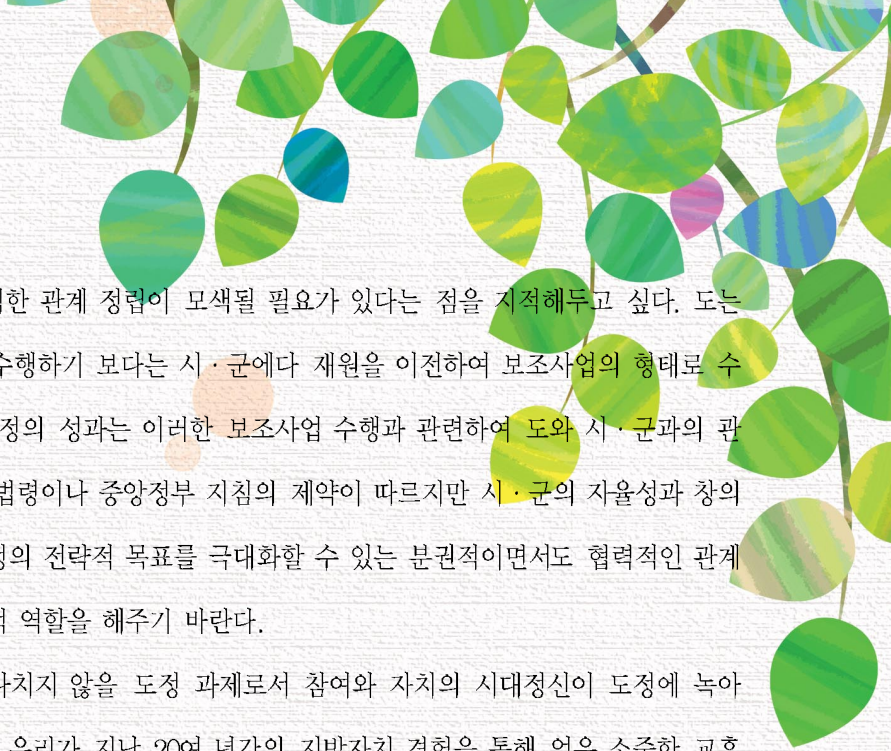
다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청 공직자들이 열정을 갖고 스스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각별한 힘을 쏟아 달라는 것이다. 도정 책임자의 도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은 도청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도정 수행 성패의 관건은 도청 공직자들이 얼마나 자기 직무에 몰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청 공직자들의 직무 충실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성과관리와 그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의 특성상 업무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데다 신분이 보장되는 정부관료조직에서의 성과관리제는 운용상의 한계와 함께 조직 구성원을 동기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다른 민간조직에서보다 더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할 목표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일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고 점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도정 수행 과정에서 도정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가장 정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술선수범이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하여 실·국·과장 관리자들이 먼저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하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간부회의에서 정해진 과업을 단지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 지시만하는 ‘투명 인간’형 관리자를 윗자리에 앉혀 놓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발적 동기를 주문하는 것은 애초부터 허망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자들의 임무와 과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하위직 공무원보다 관리자의 직무성과평가를 더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과 사업의 선행 조건에 천착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설계하는 일도 관리자들의 중요한 몫임을 일깨워줘야 한다.

나아가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도지사는 근거 없는 잘못된 공직 폄하나 부하 직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한편 바람직한 공직상을 심어주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학습, 숨은 모범 공무원의 발굴·홍보, 공무원 자녀·가족들의 일터 방문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일하는 데에 보람과 자긍심, 그리고 국민과 자녀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도와 시·군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도는 업무의 성격상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시·군에다 재원을 이전하여 보조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도정의 성과는 이러한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의 제약이 따르지만 시·군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서도 도정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권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데 충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도정 과제로서 참여와 자치의 시대정신이 도정에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은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결여된 자치는 시민과 유리된 무늬만의 자치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안희정 민선 5기 충남 도정은 ‘소통과 참여’를 주요 도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도민참여의 루트를 확산시키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민선 6기 충남 도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참여와 자치의 틀을 근본에서부터 보완·혁신하여 도정의 중심에 도민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주길 당부한다.

아무쪼록 안희정 민선 6기 충남 도정이 도민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튼튼한 초석을 다져주길 기대한다.



● 특집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민선 5기 도정기조 유지하되, 정의(正義) 가치 실현할 터



안 희 정 | 충청남도지사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1995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2002년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장
2007년 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장
2008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2010년 제36대(민선 5기) 충청남도지사
2014년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

이번 열린충남 여름호는 ‘민선 6기 충남도와 15개 시·군을 이끌어갈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다뤘다. 포부와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해보는 장이 되길 바란다.

본 특집 원고들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실었으며,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도지사 질문을 제외한 시·군은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린다. [편집자 주]

▲ 당선을 축하한다. 재선 소감은?

2010년에 이어, 2014년 저 안희정을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려를 씻고 위기를 기회로 달려왔으니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하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뜻이라 새기겠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3농혁신, 행정혁신, 주민자치, 상생산업단지 등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들을 지방도정에서 도전하고 실천해 왔다. 민선 6기를 통해 이 과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5기 도지사의 연임을 선택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택해 주셨다. 이 선택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좋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 충남도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교황 성하의 방문과 내포신도시의 정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황의 방문과 관련해서는 8월 15일과 17일,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다. 우선 15일 오후 5시 쯤 '아시아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당진 솔피성지를 방문하고, 17일에는 오전 서산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후에는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특히 충남에서의 일정은 해외 언론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가 높다.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내포신도시 건설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초석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발전단계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새로 입주하는 주거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상가의 입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신도시 조성공사 등 기본사업에 추진에 충실하면서 민간투자 여건조성 및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 3농혁신, 자치분권, 행정혁신 정책이 지난 민선 5기의 핵심 정책이었다. 민선 6기는 무엇인가?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의 3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다.

● 특집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이 밖에도 민선 5기에 세워졌었던 각종 지방정부의 도전과제들, 충남 농업 및 행정, 주민자치분권 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갈 것이고, 또한 환황해의 서해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 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졌던 새로운 충남도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는 문화관광광산업에 대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공간적으로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서해안비전, 금강비전 등 7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7개 종합발전계획** :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세종시 주변 발전전략, 서해안비전, 금강비전, 충청남도 도서발전계획

※ **6개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 산업경제, 농림어업, 문화체육관광, 복지보건교육, 건설교통소방, 환경 에너지

▲ 민선 6기 들어 환황해경제권 구상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체계적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축 또한 과거 경부축에서 내포·서해안축으로 이동(박근혜 대통령, 도청 내포신청사 개청식(13. 4. 4)에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고 충남을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민선 5기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서해안 비전(3대 목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서해안 비전」의 3대 목표는 (목표1)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 - 국제항 물류기반 확충, 국제항로 개설, 항만과 도시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이며, (목표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 건강한 연안·하구 복원, 안전한 해양 및 물 관리, 「국제해양 관광벨트」 조성, 문화·레저와의 연계 강화 등 (목표3)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 풍성한 수산물 생산, 수산업의 선진화 기반 조성, 해양 연관산업 육성 등이다.

앞으로, 「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해 2014년 말까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논리를 개발해 국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 ‘환황해시대’ 서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황해와 인접한 충남도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하나?

환황해경제권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연간 교역규모가 6조\$로 세계교역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환황해경제권 : 중국(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한국(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일본(규슈)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황해경제권 시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내포신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내륙과 서해안 균형발전을 이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서해안 중심의 해양물류 및 해양관광 중심의 항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진·평택항을 중부권 대중국 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 지원항과 국제여객항으로 태안항, 대천항, 오천항 등의 연안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내륙과의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산~당진, 당진~천안, 평택~부여,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철도망 구축 등 SOC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시대의 경제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민선 6기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다시 한 번 저를 선택해주신 충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깊이 새기며 민선 6기 충남도정을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가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또한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주셨다. 저에게 두 번째 도지사 임기를 허락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큰 뜻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를 잘 이끌고 경험을 더 쌓아서, 충청도 선배정치인들의 그 좌절과 비애를 한 번 뛰어넘어 보라’는 도민의 명령이라 들었다.

한 번 더 도민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민 중심의 섬김 시정 구현으로 행복한 안심도시 건설



구 본 영 | 천안시장

1952년 충남 천안 출생

1984년 서울시립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1989년 국무총리조정실 행정사무관

1999년 국무총리실 농수산건설 심의관

2004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2008년 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이사장

2014년 민선 6기 천안시장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61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여느 선거와 달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맞춰 떠들썩한 선거전 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후보자 간의 발전된 의견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시민 중심의 섬김 시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동시에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민선 6기 동안 시정 철학으로 삼아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모두 바치겠다.

▲ 현재 천안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와 시민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1 공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저는 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어려운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저는 어려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소통을 원칙으로 열린 시장을 펼쳐 나가겠다.

그 동안 천안시는 시민 행복보다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인구증가 및 도시의 양적 팽창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천안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성장은 무의미하다. 이제 모든 시장 역량은 시민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성장과 함께 행복의 시대로 천안을 이끌어 나아가겠다.

천안은 지금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우리 천안이 영광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민 여러분과 제가 혼신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천안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소속 시·도의원님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정으로 통합하고 협력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 행정을 보여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장과 공직자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며 재정이 가장 튼튼한 천안, 예산이 가장 탄탄하게 집행되는 천안, 공무원들이 자부심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천안, 새로운 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민선 6기 역점 사업 및 주요 공약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학생들에게 너무도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선진국 진입을 논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처 능력이 이렇게까지 후진적일 수 있는지를 수십번 되물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고 제가 가진 경험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안심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 것이 시대의 사명이요 민선 6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특화발전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330여개 기업이 위치한 서북지역을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집중 발전시키겠다.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720억 원(국비 900억, 지방비 385억, 기타

● 특집2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6,435억) 규모로 천안~아산~내포신도시를 잇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산업지대를 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과학벨트 SB플라자가 2015년부터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져진 천안의 산업기반을 기초로 해서 '과학벨트 SB플라자'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도시첨단 산업단지', '충남테크노파크'를 잇는 '과학벨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향후 100만을 준비하는 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

13억 중국을 겨냥한 '농산물 및 농식품 전문 수출산업단지' 조성,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명동 일대를 천안 문화예술 부흥의 중심이자 전국 명소로 성장시키는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명동 예술촌 조성사업,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4개년 프로젝트, 원도심 재생지원센터 운영, 원도심 활성화 기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500세대 신규건설, 전세임대주택 500세대, 신혼부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 등 총 2,500세대의 서민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

이와 함께 100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 마이스터고 설립과 함께 기업특화 인재교육 활성화, 신도시 위주의 개발 정책과 난개발에 따른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진 중심의 개발이 아닌 문화예술 중심의 재생을 추진하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안심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세월호 참몰 과정에 드러난 재난대응체계의 미숙함을 전 국민이 보고 또 가슴 아파했다. 도시의 무환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경쟁우위를 위해 인구를 늘리고 공장을 짓는 등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성장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시의 주요시설물과 안전 우려지역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불어 재난안전 매뉴얼을 현장중심으로 보완하겠다. 또 재난대응 콘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천안시 종합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다가올 2020년, 천안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천안시와 시민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천안시는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 기조가 자리 잡고, 시민은 천안시의

정책을 믿고 신뢰하여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함께 성장해 있을 것이다.

천안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공부 잘해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닌,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키워주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서민 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을 통해 입주 대기연수가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주거복지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신혼부부와 독거노인들께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문화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으로 명동예술촌, 천안역세권 활성화, 작은 공연장 확대,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의 효과를 통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 또한 월등하게 향상되어 있을 것이다.

서북지역은 총 사업비 7,72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며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IT, BT 등 특화된 산업단지와 함께 과학벨트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천안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인건비 손실이 없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향상과 정주여건이 편리한 도시 기반, 융복합 산업단지의 안정적 조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장이 되고 싶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계약을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시민께 공개하겠다.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께서 소중한 힘을 모아주셨다. 시민의 이러한 기대에 이제는 구분영이 부응할 차례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천안을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시민들의 선택에 대하여 보답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오는 도시만들기 앞장



오 시 덕 | 공주시장

1947년 충남 공주 출생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1994년 한양 건축및토목사업부문 사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6년 ITM그룹 회장
2014년 민선 6기 공주시장

▲ 당선된 소감

공주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이 모여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상, 시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맛나는 공주"를 만드는 것은 저의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동안 선전을 해 주신 다른 후보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공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들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 또한 제가 제시한 공약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시민생활을 일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서민, 약자, 소외계층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주인인 선진 행정도시를 만들겠다.

반목과 갈등은 공주미래의 크나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공주시민 모두가 화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선거에 임한 후보들을 경

쟁자가 아니라, 공주발전을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나아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공주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

▲ 현재 공주시의 현안과제

▲기업하기 좋은 공주건설로 고용을 확대하고 정주인구의 증가와 시민소득을 증가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와 공주의 관광, 휴양도시로의 기능적 상호연계를 통해서 상생발전 방안 ▲2015년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지역마다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성화를 바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계승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공주의 원도심 활성화.

▲ 역점사업 및 공약

▲활력 넘치는 혁신적 창조기업 도시

- 기업유치활동 행정강화 · 대기업 유치와 애향공단 조성 · 구도심 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도시재생 및 고도육성법 활용) · LH 월송 주택단지 조기착공(월송-송선-세종을 잇는 도시축 개발) · KTX 남공주 역세권 개발촉진

▲역사 · 문화가 숨쉬는 아름다운 희망의 관광도시

- 금강수변 종합관광레저시설 확충 · 특색있는 관광도시 미관정비 및 조성(가로수, 건축물, 간판 등) · 공주 역사문화유적 및 이야기 발굴(스토리텔링)로 관광 자원화 ·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유네스코) · 웅진백제 4대왕 추모각 건립 · 도심 및 관광지 주차난 해소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미래가 행복한 농촌

- 지역특화농산물 집중육성과 유통센터 설립 · 농업 종합지원관리센터 확대(농기계 임대 사업, A/S확대 등) · 밤 종합연구소 설립 ·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 귀농, 귀촌 지원강화 · 농산물 직거래매장 운영

▲교육과 복지환경이 어우러진 도시

- [교육] ·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 출산장려 및 영 · 유아보육지원확대 · 어르신 여가활동 및 경로당 중심 보건의 안전 지원확대 · 우리지역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확대
- [복지] ·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대학문화거리 조성 · 시민체육공원 조성(어린이 야외수영장, 축구장 등) · 장애인 전문 종합지원센터 건립

▲참여와 소통이 어우러진 선진행정도시

- 시정발전 연구단 설립 · 시민참여 행정확대(정기적인 시장과의 만남의 날,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도 등) · 정책 책임제 실시 · 시민 행복지수 향상정책 발굴 추진 · 여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 다문

● 특집3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화가정 및 새터민의 조기적응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것

▲기업유치활동 행정 강화 ▲시정발전 연구단 설립

▲ 2020년 미래비전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오는 도시"를 만들어, 강남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농촌이 살아나며, 교육, 관광, 복지환경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 공주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더 겸손한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고향 공주발전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자손만대까지 길이 살고 싶은 도시로!



김 동 일 | 보령시장

1949년 충남 보령 출생

동아인재대학교 졸업

보령시 총무국장 명예퇴직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현 새누리당 충남도장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보령시장

▲ 당선소감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11만 보령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를 당선시켜 주신 보령시민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보령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지금 보령시는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면서 보령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나누어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보령시민께 약속드린 것과 같이 실천하는 시장으로 낙후된 보령을 발전시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감동하는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시장, 야당까지 포용하는 통합시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시장이 되겠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보령시의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우선, 선거기간동안 나누어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초를 만들어가겠다.

첫째, 우리 보령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보령신항 건설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우선, 2015년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앞으로 보령신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도로여건을 가진 곳이 보령시다. 장항선 복선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국도21호(보령~서천), 국도36호(보령~청양), 국도40호(보령~부여), 국도77호(보령~태안)의 조기 완공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충청선철도(보령~조치원) 건설, 동서도속도로(보령~울진)의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 직속의 기업유치 인·허가 총괄 TF팀을 설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기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하고 현재 조성중인 공단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둘째,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겠다.

보령의 동서(보령~대전)축과 남북(태안~보령~서천)축을 연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령시가 내의 정체구간 도로를 개선하여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포츠, 사계절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고 차별화된 힐링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 또한 미래 해양 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복지예산과 농 산 어촌의 예산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

사회취약계층(서민,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등 확보와 예산지원에 노력하겠다.

다섯째,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확대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도심, 하천, 산림자원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생태존을 구축하겠다.

여섯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명품 행정도시를 만들겠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과 평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

진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은 침체된 보령시의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문화·관광과 접목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현재 추진중인 선진일반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가 조차 착공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닦고, 보령의 자랑인 석재산업의 발전 대책도 강구하겠다.

수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지구는 대체 활용을 위한 보령신항의 배후 산업단지로써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보령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개정에 노력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보령은 예로부터 자손만대가 이어 편히 살 수 있는 복된 땅이라 하여 萬世之保寧(만세지보령)으로 불리어 왔다.

2020년 보령시는 보령신항 건설과 함께 우량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은 물론 수많은 유 무인도, 보령댐, 성주산, 오서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보령머드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축제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1만 보령시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자손만대까지 길이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지난 선거기간 중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보령 발전을 위한 열망과 열정을 저는 가슴 속에 무겁게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일과 함께 당당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선6기 새로운 시작, 시민이 행복한 아산



복 기 왕 | 아산시장

1968년 충남 아산 출생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박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0년 민선 5기 아산시장
2014년 민선 6기 아산시장

▲ 당선소감

먼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를 다시 한 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또 한번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선 5기에 기초하고 시작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바람을 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4년간 시정을 펼쳐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도 많았다.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갈 민선 6기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6년 전국체전 준비 본격화를 통해 성공적인 전국체전으로 만들겠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 가겠다.

아울러 대중교통체계를 확대하여 교통소외지

역이 없는 대중교통 혁명시대를 열어가고, 신도시 복합문화정보센터 구축 등 아산시의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내겠다.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도 더 잘할 수 있다. 민선 5기에 시작한 일 민선 6기에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명품도시 아산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시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

▲ 아산시 주요현안 과제

아산시의 주요 현안과제로는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종합병원』 유치,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이다.

2016년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단순히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나아가 충남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 해 갈 예정이다.

우선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 확충과 실내수영장 및 종합스포츠 센터 건립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예정에 있으며 축구장과 모종시민체육공원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전국체전 남측 주 진입도로 이용 될 외암대로 확포장공사도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민선 6기 핵심공약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4월 폐업된 한사랑 아산병원이 머지않아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공백에 대한 시민의 불만사항도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보여진다. 그러나 아산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하반기 대학병원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민선 6기 중에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 번째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추진이다. 아산과 천안은 지난해부터 주민이 행복한 지역생활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모델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충남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아산시는 올해 민선 5기 공약이행분야 충남 유일 최고등급(SA)을 획득하였다. 민선 6기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아산 만들기 기본 좋은 10대 약속』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집5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10대 약속은 민선 5기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아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해 『3대 핵심 공약과 7대 주요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개 분야에 81개 추진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3대 핵심공약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유치한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종합병원 유치,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편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개 주요과제로는 안전한 아산, 따뜻한 복지, 좋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활짝 웃는 농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산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별 최초 검토에서 완료까지 추진과정을 실명 관리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가고, 시민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에 들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꼽는다면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전국체전 유치는 30만 아산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 이 성과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개최를 통해 아산의 발전도 10년 더 앞당기고, 나아가 충남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0년 아산의 미래비전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인구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10년간 신도시개발 추진, 수도권전철개통,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인구유입을 가져왔으며, 올 2월에는 인구 30만을 돌파하여 중부권 거점 경제 자족도시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2020년에 인구 4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아산에는 세계 굴지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2,000여개의 기업체가 이미 입지해 있고, 여기에 현재 조성중인 탕정산업단지와 아산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신창 선장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첨단 디스플레이 R&D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가 가장 풍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2018년에 개통 예정인 서해안 복선전철과 당진~천안 고속도로,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산은 서부권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 산업분야에서의 성장은 물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 중앙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 세무서 유치, 신도시지역의 복합문

화정보센터 건립 및 경찰대학 이전,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2020년 아산은 누구라도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희망도시가 될 것이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제 고향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저는 제 고향 아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4년간 기초하고 시작한 일들을 민선 6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

시민이 행복한 일이라면 앞장서겠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도전을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

민선 5기 시작과 끝을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듯이 민선 6기 시작과 끝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아산을 위한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이 완 섭 | 서산시장

1957년 충남 서산 출생
2011년 송실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2003년 행정자치부 총무과 서기관
2009년 서산시 부시장
2011년 민선 5기 서산시장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

▲ 당선된 소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먼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경선을 치르고 레이스를 같이 한 모든 후보님들을 비롯해 지지하신 모든 분들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서산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위대한 선택이자 서산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일궈낸 17만 시민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같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염원을 가슴 속 깊이 담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서산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농어민이 행복한 농축수산 도시, 희망이 넘치는 교육건강복지 도시, 활력 넘치는 사통팔달 산업경제 도시,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제적 관광 도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재난안전 생태 도시를 통해 ‘해 뜨는 서산’을 ‘해가 지지 않는 서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 그대로 시민 여러분을 진정으로 섬기며, 시정의 주인이 시민 여러분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 한 표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선 6기 서산시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서산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오는 8월 해미읍성에서 개최되는 천주교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의 차질없는 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황방문 준비단(4부 28반)을 구성하였고 6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와 행사운영, 기념사업 등 총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는 해미읍성은 7월말까지 6억 원을 들여 내부 관람로, 배수시설, 진남문 지붕을 보수하고 해미읍성에서 순교성지까지 1.2km 구간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관문과 이동 구간에 위치한 구조물은 지역 특성을 살려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TV를 통해 전세계에 생방송될 예정으로 해미읍성이 전세계 천주교 신자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천주교 성지로 널리 알려질 것이고 이후 국내·외 관광객과 순례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총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미읍성 주변에 순교자의 길(14처) 정비와 시복자 3위 동상 건립 등 교황방문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교황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해미읍성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지난 2년여간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이제부터는 서산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서산을 위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시민의 활발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정을 펼치겠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은 모두 103건으로 대표적인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농어민의 행복한 농·축·수산물도시 건설을 위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구축,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

● 특집6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희망이 넘치는 교육·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실시,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과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노인복지타운과 고용 복지 문화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활력 넘치는 사통팔달 산업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과 서산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대산4일반산업단지,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서산남부산업단지, 서산3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4년의 재임기간 동안 매년 20개 이상씩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주력하겠다.

또한,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 지방도 649호선 등 지방도로망,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서산 대산항 자동차부두 건설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제적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미읍성 및 천주교 성지의 세계적 명소화 추진,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조성, 천수만 권역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삼길포항 관광자원화사업과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해 세계테마파크를 조성함과 아울러 종합예술회관 및 예술인 창작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재난안전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4시간 통합안전센터와 부녀자·노약자·청소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복합 공용터미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조성, 관내 명산 등산로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군 전역자,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은퇴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만,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에서는 우범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통합 관리하는 24시간 통합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유시티(U-City) 기반을 바탕으로 부녀자·노약자·청소년 안전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겠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고용유발효과 10,500명, 생산유발효과 9,100억 원, 지방세수 년 312억 원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서산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현재 특구의 진입로 2곳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특구내 연구시험동이 금년도 10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부품공장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산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또 하나의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미 호주와 5,000억 원(추정) 규모의 투자 원칙에 합의한 상태로 앞으로 투자내용과 사업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미래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먼저, 현재 진행중인 5개의 산업단지가 모두 준공되어 총 15개의 산업단지에서 공장들이 힘차게 돌아갈 것이고 국도 38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649호선, 간월호 관광도로와 동서간선도로 등이 모두 개설되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게 됨은 물론, 대신항에서는 중국 룡청시와 국제 쾌속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여 인구 20만 명을 훌쩍 넘는 중견도시로의 기반을 갖추게 되고 시의 예산규모도 1조 원에 육박하여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들이 폭넓게 추진됨으로써 서산시가 명실상부 서해안시대의 중심, 충남의 대중국 관문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세계테마파크가 조성된 서산은 바야흐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관광도시로써 각광을 받게 되어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는 선거기간에 있었던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잊고 더 나은 서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 서산은 충남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며 힘찬 용트림을 하고 있다.

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시정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채찍질을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 바로 논산!



황 명 선 | 논산시장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2003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2002년 서울특별시의회 6대 의원
2006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0년 민선 5기 논산시장
2014년 민선 6기 논산시장

▲ 시장의 당선소감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의 발전을 위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성원, 가슴깊이 담아 민선 6기 실천하는 모습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재선이라는 기쁨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욱 신중하고 무거운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원칙과 기본,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반드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신중히, 더 무겁게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대한 논산의 발전과 도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지난 4년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디든 달려가 논산의 성장 기반을 다져 왔다. 이

제 그 기반 위에서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지지자,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 후회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논산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는다면?

논산의 주요 현안 과제는 논산의 미래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호남고속철도 KTX 논산훈련소역 신설과 ▲육군훈련소 훈련병 영외면회의 논산관내 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배려정책이 필요하며,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탐정호 체류형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이다.

또한 논산을 중심으로 한국유교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충청유교의 전통과 가치의 재조명과 전승할 구심체 역할을 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다.

▲ 역점사업 및 공약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KTX 논산훈련소역 신설 및 기존 호남선 KTX 논산역 정차 병행 추진 ▲육군훈련소 훈련병 영외면회의 논산관내 한정 추진 ▲지속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농업관련 예산 최우선적으로 배정 ▲친환경·고품질농업 육성 및 농축산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탐정호를 친환경 레저, 숙박, 주거, 휴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류형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 ▲충청유교문화원·논산문화원·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 ▲행복경로당 등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조손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더불어 살고 싶은 교육도시·안전한 친환경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시립도서관 건립과 기존 도서관 시설의 현대화 ▲시민의 숲·반야산 숲길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대 ▲중교천, 논산천, 연산천 등에 생태 보행로 등을 설치해 친환경 공간 조성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확대로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역량강화도시를 실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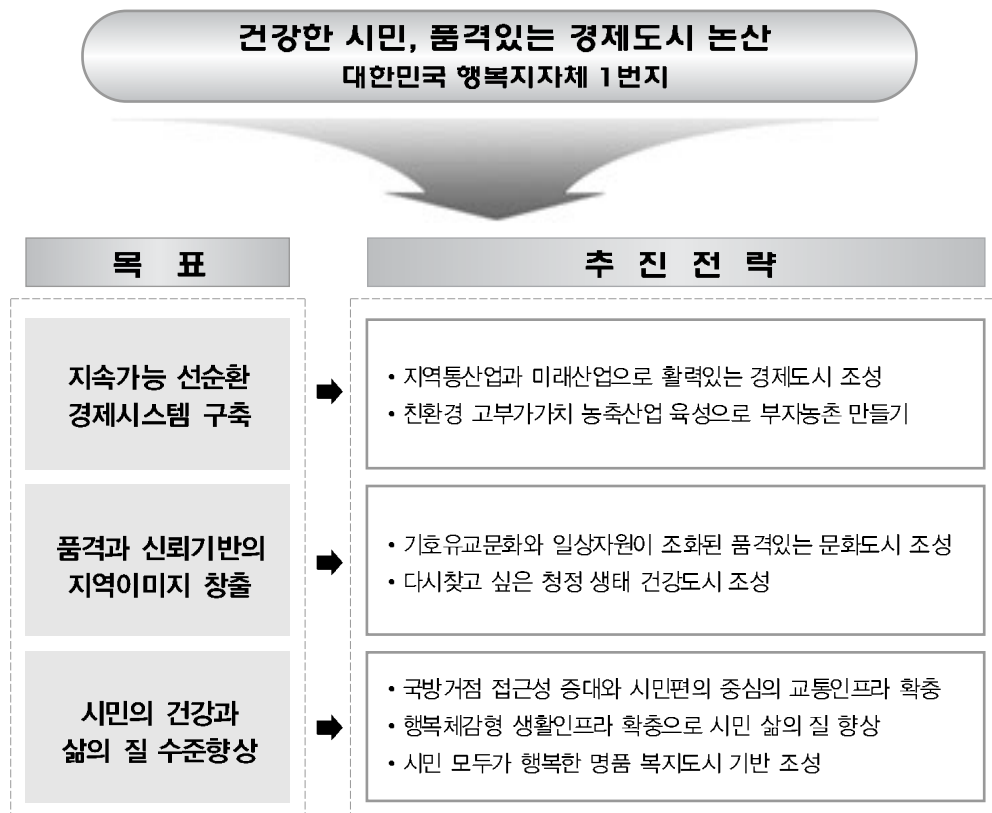
▲ 그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우선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KTX 논산훈련소역 신설,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력유입으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또한 기호유교문화와 일상자원이 조화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탐정호 체류형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과 시민의 문화 여가시설 및 힐링·휴(休) 체험 공간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 본다면?

논산의 지역브랜드(이미지) 재창출 및 지역자산 활용, 중앙정부의 정책연계 활용 및 주변 지역간 연계 촉진, 정부 3.0시대에 걸 맞는 개방·소통·협력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 품격있는 경제도시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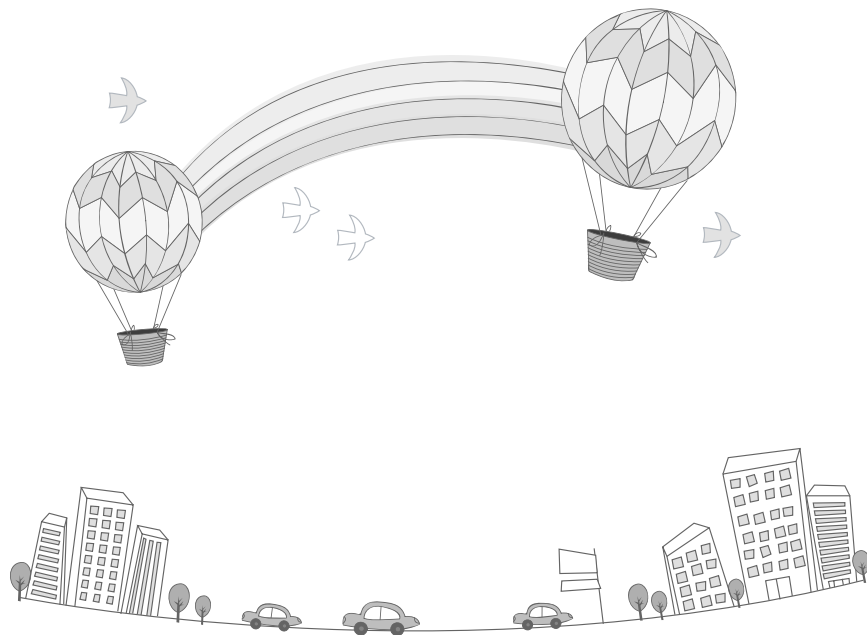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민선 5기 4년 동안 이 말을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겨 왔다.

그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산의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당당한 논산발전을 이끌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해 왔다. 원칙과 신뢰, 소통과 참여, 창의와 혁신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가슴 뛰는 열정으로 일해 왔다.

그동안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하에 성장의 기반을 다져 왔다면 이제는 그 기반위에서 새로운 논산100년 발전을 위해 도약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성원 가슴깊이 담아 민선 6기에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을 만들것으며 시민들의 생활 깊숙하게 다가가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시민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인구 10만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건설에 매진



최 홍 목 | 계룡시장

1949년 충남 논산 출생
2004년 중부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1998년 제3대 논산시의회 의원
2002년 제4대 논산시의회 의원
2003년 초대 계룡시장
2006년 제2대 계룡시장
2014년 제4대 계룡시장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다시 뽑아주신 것은 초대와 2대 시장으로서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다.

이번 당선이 앞으로 民·官·軍 화합과 자족도시 계룡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채찍질과 계룡을 명품도시로 만들길 원하는 시민들의 간곡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제 임무를 성실히 다하는 날, 깨끗한 공직자로 계룡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놓아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은 바람이다.

▲ 현재 계룡시의 주요 현안과제는?

계룡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공공기관이 부족한 편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유치목표 6개 기관 중 3개 기관을 유치하였으나, 향후 법원 등기소, 경찰서, 교육지원청의 유치를 위해 핵심기관 지속 건의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인격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고려해 나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보 사업으로, '엄사~노성 간 국도지선 개설 사업', '두마~연산 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선 사업', '신도안~세동 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획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하대실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낙후된 양정지구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2016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 '계룡세계軍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역점 사업 및 공약은?

명품도시 계룡을 만들고 싶어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의 심정으로 '시민 중심 11대 공약'을 내세웠다. 11대 공약, 43건의 세부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 ◎ 『보편적 복지를 향한 광의의 복지정책 실현』 5건(종합사회복지관설립, 1,000원 효성택시 운행, 노인회관 증설 등)
- ◎ 『계룡 '사랑 공동체' 구축』 3건(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 보훈·軍 관련 및 사회단체 지원, 계룡·民·軍 화합의 날 개최)
- ◎ 『문화 여가공간이 충분한 명품도시 조성』 4건(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계절 예술공연 축제 개최 등)
- ◎ 『생활체육의 대대적 육성 지원』 3건(종목별 시민 체육단체 공간 시설 확충 및 운영비 적극 지원, 금암동 천마산 금남정맥 구간 등산로 정비 등)
- ◎ 『권역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건(크린아파트 조성, 두계 1,2리 재개발 추진, 계룡역 역세권 개발 등)
- ◎ 『경제 순환체계를 갖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 3건(지역경제 순환센터 건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센터 설립, 입암공단 기업 조기 유치)
- ◎ 『양질의 교육 명품도시 육성』 4건(평생학습관 설립, 합동 교육 협의체 구성, 신도안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중·고교 기숙사 건립 지원)

● 특집8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 ◎ 『경제가 살아나는 관광 도시 조성』 4건(향적산 ‘산림치유센터’ 조성, 세계軍문화축전 개최, 도민 체전유치, 전국 시니어 건강 페스티벌 개최)
- ◎ 『주민편의 최우선 도시 조성』 5건(국도 4호선 우회도로 착공, 남선라~세동 간 연결도로 착공, 공공기관 유치 등)
- ◎ 『재난관리 체계확립』 2건(방범·재해 사각지역 CCTV확충, 시민안전센터 설치)
- ◎ 『계룡브랜드의 국제화』 2건(세계군사도시 연맹 결성 등)이다.

역점사업으로는 최근 향적산 문제로 분열된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자 향적산 일대 60만 평을 市가 매입하여 「산림치유센터」로 명소화하고, 1,000원 효성택시 및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등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향한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528억 원 정도인 지방교부세도 1,000억 원 이상 따낼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실지구와 하대실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도시기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경제 순환 고리를 만들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저의 모든 정치철학은 바로 ‘孝’와 ‘이웃사랑’에서 시작된다. 평생 ‘효성’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이번 선거 슬로건이 「효소정치」였던 만큼, 시민을 효성으로 모시고 막힘없는 소통으로 시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중심 11대 공약 중 최우선 근간이었던 ‘孝’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향한 광의의 복지정책 실현’을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그리고 주거, 교육, 노동, 多문화가정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으로 시민의 복지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광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실현토록 하겠다.

또한, 오지마을 어르신, 장애우를 대상으로 1,000원만 내면 계룡시 관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타는 사람은 편해서 행복’ 하고 ‘태워주는 사람은 보람이 있어 행복’한 수요응답형 「효성택시」를 운행하겠다.

100세 시대 노인이 공경받고 노후의 시간이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조 확대’, ‘노인회관 증설’, ‘노인체육시설 증설’과 ‘노인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골드 100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 외에도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확대’, ‘여성과 장애우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실현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2013년 계룡시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며 2014년을 계룡시 '제2의 도약기 원년'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계룡軍문화축제의 세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국방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대실지구와 하대실지구 개발로 인구 10만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추나갈 것이라 본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평생 효성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듯이 시민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막힘없는 소통으로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3대 계룡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난 4년간 계룡시 발전방안을 위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위대한 결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직 시민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일해 오늘의 승리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승리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저의 평생 신조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원칙과 '부와 명예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철칙 속에 평생을 살아온 만큼 계룡시 역사 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계룡시장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건설



김 홍 장 | 당진시장

1962년 충남 당진 출생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재학
1996년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2010년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
2012년 제9대 충남도의회 행정위 위원
2014년 민선 6기 당진시장

▲ 당선소감

먼저, 민선 6기 당진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전국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가장 큰 도시이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니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당진은 전통적인 농업에서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유입인구와 지역민 간의 갈등의 문제가 불어지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 송전선로 문제 등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적 향상, 즉 행복한 변화 속에 품격 있고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드는데 전력해야 한다. 당진시민의 염원대로 당진의 좋은 기회를 희망으로 만들어 반드시 주인인 시민과 함께 당진의 대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울러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 오신 다른 후보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들을 지지하셨던 뜻을 소중히 받들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당진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외부에서 인구도 활발하게 유입되는 도시인만큼 현안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우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진은 현재 송전선로 등 철탑 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 동부화력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이 흩어져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제 모두가 당진의 구성원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도 시급한 문제다. 산업단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외부에서 이주하는 인원은 많은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 도시계획 재수립으로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침체된 전통시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통시장, 원도심은 당진경제의 근간이자 희망이다. 당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상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전통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광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를 마련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찾아오기 편리하고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과 원도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환경문제다. 이제 당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난개발 종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친수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 생태도시 당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앞으로 당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고루 모아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 분야별 중점 방향

저는 민선 6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6개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로 더욱 살맛나는 당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풍요로운 당진경제 조성이다. 철강도시만으로 당진이 부유해질 수 없다. 철강도시를 뛰어 넘어 항만물류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당진을 그려야 한다. 아울러 지역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당진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추구다.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열린 광장 토론회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

세 번째, 더불어 누리는 복지 추구다.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다. 이를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동자 등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완성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교육 환경 조성하고 함께 시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성지순례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기지시출다리기가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항포구와 관광지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을 육성하여 관광, 휴식, 레저, 체험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이다. 당진의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앞으로 당진은 보전과 개발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섬을 해소해주는 친수 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곳곳에 썸지공원 조성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당진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섯 번째, 함께 잘사는 농어촌 건설이다. 농어촌은 우리의 희망이자 당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민이 주도적으로 함께 잘사는 농어촌을 그려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농산물 집중 육성, 도시 및 해외 등 판로 개척을 통해 농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상 분야별 중점 방향을 토대로 민선6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당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저의 공약이 되었다. 미래 당진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현될 것이다.

우선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의 장을 만들겠다. 주민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민과의 대화 확대, 다양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간, 행정과 시

민 간 대화와 소통을 늘려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진항을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추진이다.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17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또한, 중요한 것이 8월에 오시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교황님 방문은 당진이 천주교의 메카로 세계 속의 당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합덕성당, 솔피성지, 신리성지를 연결하는 성지순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2020년 미래비전을 그려본다면?

현재 당진의 모습을 과거 10년 전 당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는 가끔 당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깝게는 5년 후의 모습을, 멀게는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당진의 모습과 함께 행복하게 미소 짓는 시민의 모습이 그려진다.

당진은 2030 도시기본계획 속에 50만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200만 평의 산업단지가 힘차게 돌아가고 당진항만의 46선석 조성 완료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쾌적한 정주여건이 확충되면 인구 유입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희망을 갖고 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다. 2020년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당진의 희망찬 미래 모습을 꿈꿔본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당진시민 여러분! 이제 민선 6기는 '시민의 시대'로 새롭게 출발한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대, 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시정으로 반영되는 시대, 시민의 작은 꿈이 큰 희망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

또한, 시민 누구하나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드리겠다.

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당진을 물려줄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 동북아의 해양중심 도시, 품격 있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행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금산발전 로드맵 완성할 터!



박 동 철 | 금산군수

1952년 충남 금산 출생
2012년 중부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4년 금산군 부군수
2006년 민선 4기 금산군수
2010년 민선 5기 금산군수
2014년 민선 6기 금산군수
2014년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을
평가 공약대상(법률소비자연맹)

▲ 군수로 당선된 소감?

민선 4·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저를 믿고 금산의 미래를 맡겨주신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은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원칙있는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 다시금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금산발전의 로드맵을 완성하라는 군민여러분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내건 청렴한 리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행정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금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키우겠다.

현안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와 금산발전의 토대를 완성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지키겠다.

반목과 불신, 오해로 얼룩졌던 상처를 도려내고 군민 모두 손을 맞잡는 화합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군민 모두가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의 믿

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4년간 큰 결실로 보답하겠다.

▲ 현재 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로는 우선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다. 인삼중주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삼산업의 재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웰빙·건강도시로서의 금산브랜드 제고를 위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인삼축제와 엑스포 등 국제적 행사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광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삼류 제조·유통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로 인삼산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되어왔던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부처 합의안(수정안)이 국회 처리될 수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신도청과 충남의 동남부 극단에 위치한 금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금산~논산 연결 고속화도로)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다.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금강 광역권의 향토산업과 문화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해서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국토교통부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도민으로서의 소외감 확대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관련 군민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구역변경에 의견을 달리하는 민간단체와 협의 및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군민 화합책을 모색하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앞으로 4년은 금산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지속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거나 금산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금산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구축, ▶인삼·약초산업의 세계·명품화 ▶생활편의 시설 개선 및 개발, ▶농업의 6차 산업화 실현 ▶거점 종합개발로 균형발전을 유도,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교육지원 확대, ▶지역경제 기반 조성, 군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구역 변경 논의 등 실현가능성이 높고 지역여건에 맞는 공약을 선정하였다.

금산 발전과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제2기 균형발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 신발전지역 지구사업, 휴양형 전통의료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금산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 금산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

금산의 가장 큰 핵심동력인 인삼·약초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통해 해외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금산·추부 깃잎시설 현대화 및 생산·유통 지원, 품목별연구회 집중 육성 등

● 특집10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금산농업의 6차 산업화에 새 지평을 열겠다.

상·하수도 보급,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 주택개량 등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종합체육관 건립, 실내테니스장 조성, 전 읍면 체육센터 조성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와 체력 증진 공간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거점형 종합개발 균형발전 유도과 소외없는 금산형 복지 실현,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금산인삼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그동안 금산군은 금산 인삼·약초의 명품화·세계화에 주력하여 전 세계 9개국 45개소에 해외 금홍매장을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삼종주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속 금산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해외 금산인삼 명품관 확대(60개소)에 노력하는 한편 내수축진을 위해서 대도시 특별전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완공 및 내실운영으로 금산인삼약초의 세계화·명품화에 앞장서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금산의 수려한 청정자연, 특색있는 향토문화와 인삼·약초로 대표되는 힐링·건강도시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활기차고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이 요구된다.

정주기반도시, 산업융성도시, 복지안정도시, 문화생태도시, 자치경영도시 등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깨끗한 지속가능 환경창출과 재난예방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과 교통기반 확충을 통해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의 최고의 인삼·약초 물류기반을 기반으로 세계 인삼·약초산업클러스터 구축, 도농상생의 금산농업 실현,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산업융성도시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의료관광과 힐링여행 명소, 생태환경보전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통해 문화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전 군민의 생애별 역량개발이 가능한 교육도시로의 금산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4년은 금산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지속해왔던 금산발전의 현안들이 마무리되고 금산발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다.

항상 낮은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며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지역발전 가속화에 앞장서며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금산발전의 토대를 완성하겠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앞으로 민선 6기 군정을 이끌어 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금산군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발전하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원칙있고 깨끗한 행정으로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수가 되겠다.



군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행복한 부여 건설



이 용 우 | 부여군수

1961년 충남 부여 출생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수료

전(사)부여노인복지원 이사장

전 국립한밭대학교 겸임교수

전 대통령직속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0년 민선 5기 부여군수

2014년 민선 6기 부여군수

▲ 군수로 당선된 소감?

먼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저를 믿어 주셨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제 새로운 민선 6기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다.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반대하신 분들과도 당연히 함께 할 것이다.

선거기간 군민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말씀과 제가 군민 여러분께 드렸던 많은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으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여러분을 진정으로 섬기며, 군정의 주인이 군민 여러분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로지 군민만 생각하며 언제나 군민 편에 서겠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역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군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현재 군의 주요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겪는 공통된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군 역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현안과제이다.

지난 1964년 19만을 상회하던 부여군 인구가 1997년 10만, 2002년 9만, 2007년 8만선이 붕괴되는 등 매년 1천명 이상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민선 5기부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년 1천명 이상씩 감소하던 인구가 20년만인 2012년 처음으로 1천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매년 그 감소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인구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우선 제도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가정 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출산율 순 증가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서는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겠다.

아울러 귀농인 보육센터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겠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을 회복시키겠다. 부여군은 이미 지난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선포하고 우량기업 유치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436억 원을 투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9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은산 2농공단지는 수도권 유망기업인 비츠로와 신화기공이 입주계약을 체결 공장을 신축중에 있고 잔여부지 또한 수도권 유망기업과 입주를 절충 중에 있다.

아울러, 백제문화단지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폭 흡수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 복합테마 놀이공원을 유치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내포신도시 교통망 지원을 위해 부여~평택간 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지금 부여는 인구감소세의 반전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권을 회생시켜야 하며, 방치되고 있는 금강변 활용대책 마련과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분기점으로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 특집1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또한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가 새롭게 부상함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대선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굿뜨래 2창업의 희망을 담보하고 보존으로서의 고도사업을 넘어 개방과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저는 금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 부자도시, 경제도시, 관광도시, 복지도시, 미래도시 등 6개 분야 63개 공약의 실현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재난 대응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민관합동 반복 훈련을 통한 완벽한 현장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군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둘째, 중부권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구축 및 대기업과의 농산물 공급 MOU 확대 등 정부의 농업 6차산업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농식품 산업구조 개선으로 고품격 농축산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등 과감한 투자로 지역 상권 회복과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넷째, 2020년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목표로 사비마을 이주단지 착공과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지역 관광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다섯째,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과 건강지원센터 등을 신축하여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백제문화단지 롯데 놀이공원 유치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해 부여를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등 군민을 위한 뜨거운 가슴과 미래를 여는 확실한 실천으로 민선 6기 동안 부여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부여군은 농업인구가 약 4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다. 전국 생산량 1, 2위를 차지하는 농산물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부여의 주력산업은 바로 농업.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부여가 가구당 농업생산액이 8,035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진정한 농업도시임을 증명했다.

이제 저는 우리 부여를 전국 제1의 선진 친환경 농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친환경 광역 유통센터를 만들어 우리 부여를 중부권 농산물 유통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민선 5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추진해 왔던 굿뜨래 제2창업을 더욱 발전시켜 1차 산업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농업을 유통, 가공, 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단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서 탈피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망 확충, 농산물 수출국 다변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부여는 그동안 농업과 관광의 양대 축으로 발전해온 지역이다. 농업은 굿뜨래 2차업으로 대변되는 6차 산업화로 관광은 백마강을 활용한 수상관광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롯데, 금강 등 국내 굴지의 기업유치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트림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농업 6차 산업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농업을 단순 가공을 넘어 친환경, 유통혁신, 수출확대 등으로 부여 농업의 제2도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보급에도 나서 부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담보해 내겠다.

관광산업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분기점으로 기존 관광객 585만, 롯데 아울렛 신규 쇼핑객 300만을 더해 2020년을 목표로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롯데 복합테마존에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겠으며, 부여~평택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남공주 KTX 연계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망 연장 계획 반영 등 새정부 대선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2020년 인구 8만 자족도시 건설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100% 희망도시 부여군을 만들어 가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군정목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새로 시작되는 민선 6기에도 8만 군민의 꿈을 모아 부여가 충남의 외곽이 아닌 충남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젊고 역동적인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고단한 군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약속이 희망이 되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겠다.

군민여러분! 저와 함께 군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부여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서천군 발전의 50년 기틀을 다지는 주춧돌이 되겠다!



노 박 래 | 서천군수

1949년 충남 서천 출생
1974년 거교 검정고시
1987년 서천군 기획실장
2004년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장
2005년 충청남도 공보관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서천군수

▲ 당선된 소감

저를 서천군수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서천 군민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의 마음은, 곳곳한 소신으로 서천군 발전과 힘찬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제가 책임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열망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우리군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시대를 열어가겠다.

우리 군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정부대안사업(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그 결실이 마침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결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어 서천군이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강한 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현안 과제를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전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 힘차게 나아가는 서천군의 대표로 저를 선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린다.

▲ 현재 서천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서천군은 인구 6만의 작은 농어촌 도시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경기 침체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과 공사에 들어가고, 김 가공 특화단지과 충천 제2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군 발전을 견인할 탄탄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기업의 유차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한 생동감 넘치는 서천군을 만들 어낼 수 있다.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온 사회 복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서천 군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맞춤형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대안사업 유치와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내발적인 경제지 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의 성장 기반은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확대 조성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 지의 조기 착공을 통한 외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의 육성과 지원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체제를 완성해야만 한다. 특히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과 어르신, 여성,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등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근로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한 중 FTA 등 세계 각국와의 무역개방과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 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판교지구 다목 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연안정비 사업, 항 포구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 생산기 반을 개선하고,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 들겠다. 특히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을 확대 하겠다.

아울러 충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김 산업의 경우, 김 가공 특화단지의 활성화와 친환경 생산설비 지원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고, 멸치 특화단지 조성, 도 산하 김 연구소 설치 등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머무는 관광, 즐기는 문화·예술, 건강한 생활체육 정착

사계절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현하겠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우리군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항송림생태관광지구 지정과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문헌서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체험 관광테마벨트 구축 등 명품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 또한 군립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역량 함양에 노력하겠다.

특히 서천군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여 충남도민과 서천군민의 대단위 화합의 장이 될 2016년 충남도민체전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지역차별 없는 균형개발 및 군민 숙원사업 적극 추진

금강과 서해, 천방산, 희리산과 넓은 평야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맞춤형 균형개발 전략을 수립 시행하겠다.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과 지속적인 상수도 보급 및 하수도 정비, 군민이 이용하기 편한 군 청사 건립 추진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군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 점검과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생태환경의 보존과 최적의 교육·보건·복지 기반 조성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우수사례 대상,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만족도 전국 2위 등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전국 최고의 복지 메카 서천군의 위상에 걸맞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서천군 직영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겠으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 구(구)장항제련소 오염부지 종합대책 마련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전군민이 함께 하는 서천사랑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도시 서천군을 위해 지역전문대학 설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가정과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18년간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대신해서 서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정부대안사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대안사업 유치 효과가 서천군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교육기관 유치, 인구 증가, 이 모든 것은 정부대안사업 활성화로부터 비롯된다. 서천군 전 분야에 걸쳐 연계발전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2020년 제가 그리는 서천군의 모습은 3가지로 대표될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그것.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작지만 알차고 힘 있는 도시, 군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정주여건 속에서 살고 싶은 도시 서천군이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서천군의 미래이다.

▲ 마지막으로 서천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저를 지지하여 주신 서천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 결코 잊지 않겠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군정을 이끌겠다. 지난 9년 동안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배우고 익히고 느낀 모든 것을 군정에 담아내겠다. 청렴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공직자세를 바탕으로, 모든 군민을 부모와 형제 같이 섬길 수 있는 군수와 공직자가 되겠다. 탁상공론보다는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갈등과 대립은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 단결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 군민에게 이로운 행정, 군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겠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기업 유치,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서천군을 만들겠다. 인구 10만의 모두가 잘 사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로 믿고 나눌 수 있는 도시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저, 노박래는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군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서천군 발전을 위한 50년 기틀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서천군,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믿음으로 지켜봐 달라.

「청양군민 만족시대」 열어가겠다!



이 석 화 | 청양군수

1946년 충남 청양 출생
2008년 대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1년 아산경찰서장
2002년 대전중부경찰서장
2005년 청양경찰서장
2010년 민선 5기 청양군수
2012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2014년 민선 6기 청양군수

▲ 당선 소감

청양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난 4년의 임기동안 군정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다시 한 번 청양군수로 당선시켜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청양군의 미래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100년을 맞아 군민여러분께서 열망하고 기다리던 새 희망과 행복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군민 대 회합으로 통합하고 행정의 원칙과 투명성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군정 역량을 확립해 나가겠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군정 시책과 새롭게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추진하고 부자농촌과 인구증가라는 큰 목표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차별 없고 소외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군민을 위한 군수로서, 더욱 열심히 「청양군민 만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

▲ 현재, 청양군의 주요 현안 과제는

우선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당락을 떠나서 좋은 정책은 수용하고 서로 격려

하며 화합 속에 청양발전을 이룩하도록 앞장서겠다. 청양 역사상 가장 호기를 맞고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군민의 단결과 지혜를 결집시켜 위대한 청양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기초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을 군정 목표를 가속화하고 온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증진에 진력하면서 과감한 농업정책으로 희망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통해 전 군민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역점사업 및 공약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청양은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모든 문제를 군민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로 위대한 청양! 미래 100년의 기틀을 세워 나가겠다.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꿈과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교육명품도시 청양을 만들겠다. 또한, 사랑과 행복, 정성을 담은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청양을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 제일의 문화 관광 생태도시로 매력있는 고장을 만들고 믿음과 소통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민선5기 동안 부진했던 사업이나 공약사항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민선 5기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과 교육명품도시 6개 사업, 맞춤형 복지실현 11개 사업, 문화, 관광, 생태도시 조성 8개 사업, 맞춤형 지방자치 실현 4개 사업 등의 5개 분야 44개 사업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5기에 기초를 다져놓은 ‘부자 농촌 만들기’와 ‘인구 증가가 가장 큰 군정 목표’이다.

농업관련 예산을 연간 1,200억 원으로 끌어올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를 설치해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

또한 50년 만에 이룩한 인구증가의 여세로 2020년까지 청양인구를 3만 5,000명으로 늘여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무산된 스틸산업단지 부지에 새로운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정산지역에 청정 산업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와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양의 구도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환승제를 실시하겠다.

청양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의 200억 원 조성을 달성해 교육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청양출신 학생이 청양대학에 입학할 경우 2년 동안 교육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며

청양대학에 (가칭)야간농업정보학과를 신설토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청양·정산 재래시장 상권 회복,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열악한 문화 인프라도 대거 확충해 젊은이들을 끌어 모을 유인으로 삼겠다.

▲ 2020 미래비전을 그려 본다면

청양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세워지고 충남도청 신도시와 서해안권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청양군이 전국에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칠갑산, 칠갑호, 천장호, 지천구곡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출렁다리, 천문대, 장곡사, 고운식물원 등 관광자원은 연간 관광객 2백 만 시대를 넘어 3백 만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부여~청양~평택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확정 발표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음은 분명 청양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총력을 다 하겠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에 청정청양, 자연과 함께 살기좋은 청양 건설을 목표로 인구 3만 5천명, 역대 농부 3백명,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는 「2020 청양 비전」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충남의 중심지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청정 청양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관광농업을 발전시키고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 확대와 청정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전국 최고의 내륙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은 이러한 청양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청양군민과 함께 청양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청양을 만들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한 번 청양군수로 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양군은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눈에 띄게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4년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청양군 대 도약의 큰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기간이었다.

청양발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청양군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군민 모두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공약을 잘 실천하여 청양발전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적극 나서



김 석 환 | 홍성군수

1945년 충남 홍성 출생
1964년 홍성고등학교 졸업
1997년 홍성군 기획감사실장
2003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010년 민선 5기 홍성군수
2014년 민선 6기 홍성군수

▲ 당선된 소감?

홍성군정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끈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홍성을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도 7백여 공직자와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홍주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현재 홍성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도 차원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차별화 전략으로 홍성을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홍주성복원사업을 통해 홍주성역사관 건립, 홍주성공원조성, 남문·옥사 복원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다.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내 거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앞

● 특집14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당겨 개설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평생학습지원센터 건립, 종합복지센터 건립, 한옥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겠다.

천주교 성지를 개발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옥암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과 한옥촌을 건설하여 묵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오관지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360세대와 보건소·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우선 시행하고 주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주거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시장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 문화예술창작인들을 위한 활동 공간 지원 등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홍성고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대응하여 유명사립고 또는 방송통신대를 유치해 교육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낡고 노후한 군청사는 도심공동화를 자초하게 될 이전·신축 보다는,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홍주성 내에 홍주성과 어울리는 청사를 건축하여 역사성을 이어가며 공동화를 방지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민선 6기 홍성군정은 10만 군민들이 홍성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도권 전철 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서해북선전철 조기 추진, 홍성역 ~ 내포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충청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등을 강력 추진하여 신도시와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통한 홍주시 승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 여성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홍성 만들기 등 다각적인 복지시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용봉산, 오서산, 남당항, 홍양저수지 등 주요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푸른 도시공간 조성, 불법주정차 방지 등을 통한 명랑한 거리조성, 생태하천 조성, 신도시 주변 축사시설 제한 등으로 자연이 살아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다.

중물량 생산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홍성 서부지역을 산업기지화 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오토캠핑장·바다낚시터 조성 등의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농어촌 생신품의 6차산업화 추진, 농기계임대보존소 설치, 읍·면별 특화품목 개발을 추진하고 홍성 특색음식을 활용한 사계절 푸드투어,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친환경농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민선 5기부터 추진해 온 문화예술 증진 사업과 홍주읍성 복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2018년 홍주지명 천년을 앞두고 (가칭)“희망의 땅 홍주 천년대축전”을 개최하는 한편, 홍성 위인의 선양사업 추진 등을

통해 홍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교육 예산을 점차적으로 3%까지 증액시키고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 확충, 학교급식센터 활성화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이를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일하는 조직분위기로 일신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청렴 행정구현,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직혁신과 역량 강화로 군행정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동반성장 추진을 꼽을 수 있다. 70년대는 국도1호선을 따라, 80년대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해 왔다면, 21세기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환황해권의 발전이 기대 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홍성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홍성역~내포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신도시 진입로 확장,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유기농, 채소류 등의 근교농업단지 조성과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 해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하고, 옥암지구 개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원도심공동화에 대비해 홍성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할 것이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충남도청의 홍성 이전 등 변화된 여건에 발맞춰, 지난해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2025년 홍성군의 비전으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2020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중인 내포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행정의 중심인 내포신도시와, 역사문화 도시로 특화된 홍성원도심, 용봉산-오서산-남당항 등으로 이어진 관광벨트,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축산업 이 뿌리내리는 등 조화롭게 발전한 충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홍주시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홍성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를 맞아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안정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홍성을 충남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건설하라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희망-홍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소통행정으로 진정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펼쳐 가겠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홍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황 선 봉 | 예산군수

1950년 충남 예산 출생
예산농업고등학교 졸업
1996년 예산군 재무과장
2008년 예산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전 예산발전연구소장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전국위원
2014년 민선 6기 예산군수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예산을 갈망하는 우리 군민들의 절대적 열망의 표출이며, 특히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당선 의 기쁨과 더불어 엄중한 책임을 느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열렬한 지지는 저 개인의 영광보다는 군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압도적인 성원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지난 4년간 저는 군내 전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군민의 말씀을 듣고 그 분들의 애환과 고통을 몸으로 익히고 가슴으로 느끼며 눈으로 보고 귀를 열고 들었다. 또 저를 사랑해주신 군민께 보답하는 길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저를 불태워 지역발전을 시켜서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시대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의 시대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제가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이제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저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노력과 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제가 약속한 '10대 약속 80개 세부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앞당기며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 활력이 넘치는 예산건설을 위해 총력 매진하겠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예산군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예산군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줄 믿는다.

▲ 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활성화, 그리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이 우리 예산군의 주요 현안과제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우리 예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었으나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복유형 선진국형 자치단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 저수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천혜의 자원인 예당저수지를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3덕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시켜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중심도시 기반 확충,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안과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예산군은 화합과 상생발전의 새로운 예산시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제가 예산군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특집15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대기업을 유치할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재해 안전문화정착과 군민 중심의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세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교통중심 예산건설, 예당저수지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지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예방 및 상설시장 활성화, 유아, 청소년, 여성 및 교육사업 지원 확충으로 복지행정 선도, 장애인, 노인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충,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과 농림분야 지원 확대로 활기찬 농촌건설, 문화, 예술, 체육의 활성화 및 시설공간 확충입니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 군정 방향을 압축하면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우리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단순한 농업 저수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천혜의 자원인 예당저수지를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야간조명시설, 수상레저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3역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시켜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중심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업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복유형 선진국형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제가 군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 80개 세부 추진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예산군은 사람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힐링과 낭만이 있는 환상적인 관광특구로 우뚝 설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중심도시, 대기업을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당저수지 관광휴양지 개발 및 3역 관광벨트(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를 특화 발전시킨 힐링과 낭만이 있는 관광특구,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의식 제고 및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 예산군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으로 우리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높여 잘사는 예산,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예산, 머물고 싶은 예산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군정과 지역발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역을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바로써야 하고,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추진력으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을 돌아보고 군민들을 만나 피부로 느끼며 예산의 내일을 설계해 왔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노력으로 저를 불태우겠다.

군민들께 약속한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군정, 정성을 다하는 군정, 책임지는 군정을 펼쳐 나가는 선봉에 서겠다.

약속을 지키는 군수,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는 서민군수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가겠다. 활기찬 예산, 누구나 살고 싶은 예산,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건설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 더 큰 사랑 더 큰 성원으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예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태안’



한 상 기 | 태안군수

1946년 충남 태안 출생
200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2002년 충청남도 정책관리국장
2005년 충청남도 지방행정국장
2007년 태안문화원장
2012년 새누리당충남도당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태안군수

▲ 당선된 소감?

태안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선의 영광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제13대 태안군수로의 당선은 저 개인의 당선이 아닌 진정한 태안의 행복시대를 바라며 투표장으로 향했던 군민 모두의 승리다.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선진 자치군정」을 통해 「희망찬 태안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다.

선거운동 기간 제시했던 공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해 저를 선택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많은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원칙과 신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함께 경쟁했던 타 후보들과 군민 모두가 대화합하는 모습으로 태안의 발전을 선도하겠다.

준비된 행정전문가의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나서 승리한 만큼, 40여 년의 중앙과 지방행정의 폭넓은 경험을 최대한 살려 관리적 성격의 업무나 반복적인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군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 저의 경험이 접목된 군정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태안의 행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 현재 태안군의 주요 현안과제를 꼽는다면?

태안군의 현안을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생각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사고 이후 6년이 넘게 군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는 유류유출사고의 뒷수습다. 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로 본안소송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피해대책위원회와 소송대리인간 소송 쟁점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주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 발전기금에 대한 배분과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피해 배 보상과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과거의 다양한 산정자료를 확보하고, 군 자체연구 용역에 따라 출연금 운용방식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1차 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관광소득의 지역 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게 태안경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 현안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정주환경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이전과 태안경찰서 신설 등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태안의 정주여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간선 및 집산도로의 확충과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 문화 복지 등 군민 실생활과 연결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 한층 살기 좋은 모습의 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역점사업 및 공약?

민선 6기 역점 추진 사업으로 크게 5개 분야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경찰서 신설 등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아 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은 인근 대신항을 출입하는 유조선들의 길목인 만큼, 유류사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정착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안흥항 해양자원, 만리포 및 안면도 관광지, 기업도시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군의 중심인 태안읍이 활성화되도록 주민체감형 도시 재생사업과 센터 기능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안 등 중부 서해안권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군 주력산업을 관광 일변도에서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와 행정이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확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약은 크게 ①13억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해안 거점관광도시 조성 ②태안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실

● 특집16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천 ③인재육성을 위한 명품·안전 교육 ④행복하고 안전한 태안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⑤사람 중심의 행복한 태안 등 5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 공약은 첫째, 「서해안 거점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안도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이미 매립된 서북부지역 공유수면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 안면도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 서해안 경제·물류 거점으로 태안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둘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실천」은 마리아항만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테저 기업도시 조기 완공, 중합에너지특구 활성화 등으로 경제발전을 이끄는 한편, 전담 T/F팀을 만들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영세 슈퍼마켓 공동 구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실현하겠다.

셋째, 「인재육성 명품·안전교육」은 어린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와 명문고교 육성,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교육 등으로 구체화 하겠다. 또한, 학교주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과 후 안전귀가 대책 마련과 사설학원 운영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넷째, 「행복하고 즐거운 태안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은 거점별 노인 복지관 건립, 보건의료원 현대화, 119응급 헬기 지원시스템 구축, 소아과 병원 유치, 다문화가정 군립유아원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택시 안전망 구축,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확대, 청소년 문화육성, 어르신 노래교실, 노인대학, 건강교실 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계층별, 부문별 태안 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태안」을 위해 군민 레포츠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백화산을 테마로 4계절 꽃 축제를 개발하여 태안을 중추기능을 강화하겠다. 친환경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and 수산업 기술센터 설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제가 선거 당시 내건 핵심 슬로건이 ‘행복의 파도소리가 들리는 태안’이다.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한 태안」을 위해 분야별 선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 정보문화센터 건립과 지역별 선도도로의 확포장, 항·포구 확장 정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장하는 한편, 세계자원봉사자 대회 유치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역량 강화도 병행해 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태안군이 최근 수립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기초로 미래 비전을 산출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0년 태안은 명실상부 서해안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지리적 장점을 활용, 13억 중국인 관광수요를 겨냥한 관광휴양 거점이자, 환황해 시대 경제중심으로의 태안 비전을 그리고 있다.

감성이 충전되고 활력이 상승하는 해양 휴양테저단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역외교류 네트워크가 강화된 역동적인 농어촌이 현실화될 것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환경을 토대로 누구나 살기 좋고 활기찬 정주여건을 갖추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에너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자리 매김할 태안은 인구는 10만 명, 1인당 지역총생산(GRDP) 5천여만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관광객 2,000만 명이 방문하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현재 농어촌 삶의 질 중하위권에 머무는 태안을 전국 50위권으로 진입시켜 제가 목표한 행복한 태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태안군수로의 취임에 맞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정말 반갑다. 선거 이후 지역 곳곳을 다니며,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마다, 군민마다 나를 원하는 다양한 군정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살기 좋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태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를 군수로 선택하신 이유와 해답을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과제도 명확히 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취임하는 7월부터 제가 구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안군의 모습을 그려나가도록 하겠다. 앞에서 밝힌 현안이나 공약사항 등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열정과 성원으로 저와 600여 공직자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더 살기 좋고 희망찬 태안으로 보답하겠다.

편안한 피서지 태안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하나하나 퍼즐을 완성한다는 자세로 태안군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니, 계속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글 ·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합동평가제도의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국가사무 관리의 필요성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합동평가는 1999년 시범평가(2개분야 5개 부문)와 2000년 종합평가(10개 부처 50개 시책)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평가로 평가대상은 17개 시도(필요 시 시군구 실적 포함)이며 2009년 합동평가부터는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며 역사가 오래되었고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평가라는 의의가 있으며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정책집행상의 연계성 확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합동평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자체의 재설계 논의와 함께 합동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합동평가의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및 각종 평가는 2001년 1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관한기본법」에서 시작하여 2006년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합동평가 역시 이를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합동평가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국정성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개별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동평가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되면서 시범형태로 실시되었고 2000년에 종합평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당해연도가 끝나기 전 9월까지의 실적으로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때의 합동평가는 평가분야 및 평가시기가 불완전한 상태의 평가였다. 2001년 1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 6347호)이 제정되면서 합동평가가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합동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각 중앙부처에서 추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위촉한 '합동평가단'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합동평가단은 매년 초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등 약 15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서면평가팀과 현지검증팀으로 구분된다.

〈표 1〉 합동평가제도의 변화

평가 연도	'01 ('00실적)	'02 ('00실적)	'04 ('00실적)	'05 ('00실적)	'06 ('00실적)	'07 ('00실적)	'08 ('00실적)	'09 ('00실적)	'10 ('00실적)	'11 ('00실적)	'12 ('00실적)
시책 (부처)	62개 (12개)	69개 (13개)	30개 (10개)	53개 (14개)	42개 (12개)	46개 (14개)	46개 (15개)	74개 (20개)	38개 (17개)	40개 (24개)	38개 (24개)
	서류 + 현장	서류	VPS 실적업력 + 현장서류평가				VPS 실적업력 + 기관평문 검증평가(이의신청)				
	분야별 최우수, 우수기관		시책별	분야별 가, 나, 다 등급							
			가,나,다								
인센 티브 (억 원)	81	-	99.94	99.5	45	90	346	347	315	300	
특징	법제정				법제정		시범 평가	통합 평가			

안전행정부에서 집행하는 합동평가의 소요예산은 약 400억원 정도로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분야별 '가'등급 인 경우와 평가결과에 따라 시와 도를 구분하여 우수한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합동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로 합동평가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실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2〉 합동평가 과정

구 분	시 기	행 위 자	내 용
합동평가 계획		안전행정부	실시계획 수립
		국무총리실	실시계획 승인
		중앙부처	평가지표 개발
합동평가 집행	3월-7월	안전행정부	행정처리 등 관리
	3월	지방자치단체	실적입력, 상호이의신청
	3월-4월	합동평가단	VPS 평가
	4월-5월	중앙부처	현지검증
		안전행정부	
		합동평가단	
	5월-7월	중앙부처	협의검증
		합동평가단	
		지방자치단체	
	7월	합동평가단	최종검증
합동평가 결과활용	9월	합동평가단	최종보고서 작성
	10월	안전행정부	평가결과 공개
	연말	안전행정부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	행정컨설팅 신청

합동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 소관부처의 여러 시책과 시책의 하부에 위치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추진역량,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등 세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2002년 이후부터는 추진역량을 주요시책으로 흡수하여 주요시책과 주민만족도 등 두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공개하고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8조와 30조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보수체계에 연계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성과급지급, 표창수요 등 보상도 지급된다.



〈표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내용

구 분		내 용
평가환경	합동평가 제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기본
	합동평가 목적	-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
평가투입	합동평가 인력	- 안전행정부에서 구성한 '합동평가단'
	합동평가 예산	- 특별교부세 등 소요예산 약400억
평가과정	합동평가 시기	- 통상 3월~7월에 전년도 12월31일 실적 기준
	합동평가 방법	- 온라인실적평가(VPS), 현지검증, 체감도 조사
	합동평가 내용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분야별 주요 지표
평가결과	결과 공개	- 매년 평가결과 공개
	결과 활용	- 재정인센티브 - 우수사례집 발간

3.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문제와 개선필요성

지속적으로 합동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과 개선의지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제도적 기반 측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합동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21조(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하나의 조항에 불과하다. 합동평가의 목적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 평가자의 권한이나 역할, 평가정보의 활용 등의 규정 등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합동평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과 평가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는 실정이다.

② 정책관계기관 측면

중앙부처의 경우 국무총리실은 전체 정부업무평가를 총괄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며 안전행정부의 경우 합동평가제도의 원활한 진행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

동평가 대상 분야, 평가지표, 평가기준 등을 중앙의 소관부처에서 제안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최종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등에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평가지표 선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미약한 상황이고 평가 대상 분야, 시책, 지표 등을 수정할 기회가 없다. 중앙의 소관부처에서는 해당연도에 강조되는 부분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지표와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지엽적인 내용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의 시책부처 및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적 평가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해당 중앙부처가 강조하는 시책에 대한 단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 대상 시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현재의 합동평가 지표는 획일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어 합동평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과를 제대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합동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수 시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수를 받기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합동평가의 개선보다 우수등급에 속하려는 고민이 강하게 나타나며 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지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③ 평가과정 측면

현재의 합동평가 제도에서는 중앙의 소관부처에서 평가대상, 평가시책, 평가지표 등을 제안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최종결정하고 있어 합동평가단 등 민간전문가가 지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목표달성에 치우치게 하고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간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하며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합동평가의 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책행위자가 없는 실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안전행정부는 제도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합동평가의 세부과정 및 증빙자료에 대해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합동평가를 접근하고 있지만 감사와 평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

합동평가 결과가 평가제도 그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나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해도 제도개선안을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한 합동평가에서 중앙



부처가 합동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변화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정책변화에 합동평가가 활용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게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4. 합동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동평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합동평가의 근거 법령이 부족하고 이러한 규정만으로 합동평가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합동평가가 중앙 및 지방의 담당자 개인에 따라 평가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동평가의 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즉, 합동평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합동평가의 운영에 관한 규칙도 새로이 점검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법률에는 합동평가의 목적과 주체(평가자), 합동평가의 대상(피평가자)과 내용(분야, 시책, 지표 등), 합동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동평가 결과가 평가제도의 개선에 활용되고 중앙부처에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시 된다. 합동평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이 결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합동평가단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합동평가 전반에 대한 질적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권한 및 책임성을 가지고 시책의 대표성과 수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합동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사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무총리실의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함하다.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시책의 중요성과 대표성, 부처별 시책의 수준과 지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합동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단 구성과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합동평가의 내용보다는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합동평가를 주관하는 조직은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안전행정부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동평가의 전담기구를 통해 시책의 대표성 문제, 시책별 수준차이, 평가지표 선정상의 문제, 평가결과의 사장 등 합동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방법, 평가관련 컨설팅, 평가결과 활용 등 제반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합동평가

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여 합동평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검증을 통한 평가의 민주성 확보가 필요시 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합동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시 된다. 합동평가단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단의 활동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평가과정에 있어 연속성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합동평가 지표를 선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시책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평가대상 시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동평가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평가관련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동평가 지표를 도출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어질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상대지표를 활용하거나 여건이 유사한 시도를 그룹화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도 유사한 그룹끼리 비교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역특성 지표가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결과가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차원에서 합동평가를 수행한 후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중앙부처가 제안하는 개선안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업무나 시책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행정이 합리적인 운영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중앙부처 정책이 변경, 수정, 축소, 확대하는 정책개선에 주로 활용되어야 한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합동평가 역시 피평가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동평가제도가 무엇을 위한 목적이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보완해야 할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 김현구·박희정(2003),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가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류영아(20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_____(20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16(3).
박해욱·류영아(20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의 재설계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제20.
박종훈(2010), "정부합동평가지표의 개선방안", GRI Policy Brief No. 18.
안전행정부(20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이해와 전략" 자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 방안

글 · 장효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충남에는 2014년 현재 134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74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충남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2013년부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지원¹⁾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화 사업(1순위), 지역사회 기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2순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확장)를 위한 사업(3순위)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총 10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충남지역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수사회적기업 및 모범 마을기업²⁾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본 글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함의를 정리한 것이다.³⁾

제한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심층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 시사점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간 당위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는 측면에서, 행정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시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들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지표로써 기능할 수 있다.

1) 2014년부터는 현장실사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평가 점수가 추가되었음

2)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마을기업지원팀의 추천으로 구성

3) 2013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3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참고

2. 조사내용

우수 사회적기업 심사는 우수 사회적기업 지표 평가와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선정을 위해 사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⁴⁾

구 분	지 표	평 가 항 목	배점 (합 100)
사 회 지 표 (60점)	사회적목적 실현 및 지역사회기여(30)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사회적미션 실행	10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0
		- 사회적기업간교류, 네트워크활동 등 지역사회연대노력	10
	사회적기업가 경영철학(15)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가치실현 의지 및 경험	10
		- 대표자의 사회적경제분야 사회활동, 봉사경력 등	5
	사회적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정 형태(15)	- 이사회구조 및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5
		- 직원회의 개최 여부	5
		- 교육훈련(대표자, 관리자, 종사자 교육훈련 정도)	5
경 제 지 표 (40점)	운영의 질적수준(15)	- 매출액 대비 노무비 비율	5
		- 영업이익이익률	5
		- 부채비율(부채액/자본액)	5
	고용의 질적수준(15)	- 평균임금 수준	5
		- 자체고용자비율	5
		- 4대보험 가입률	5
	경영역량평가(10)	- 기술 보유현황	5
		- 판로망의 다양성정도 및 마케팅 활동	5

크게 사회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로 구분하고, 사회적 지표에는 사회적목적 실현 및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기업가 경영철학, 사회적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정 형태의 세 개 지표를, 경제적 지표에는 운영의 질적 수준, 고용의 질적 수준, 경영역량평가의 세 개 지표를 포함했다. 또한 각 배점은 5점 척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로 구조화하여 각 척도의 평가기준을 제공하여 채점하도록 했다.

3. 우수사회적기업과 모범 마을기업

이상의 척도를 통해 2013년 선정된 10개 우수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신청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3년 1차, 2차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심사자료(충남도 내부자료)



	우수사회적기업	공모 사업
1	(주)즐거운밥상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및 공유사무실 구축 사업
2	(주)드림앤챌린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2호점 개점
3	(주)에이스잡	공동 사무 공간 및 교육장 조성 사업
4	(사)충남교육연구소	시설 공간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
5	(주)더부러	폐슬러지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건축자재 연구 및 제조
6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7	(주)깔끄미하우스	하수처리 시설비 일부 지원
8	(주)깨끗한 사람들	청소업종 사회적경제조직 협업사업(청소교육장, 교육기자재 등)
9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설 일부 지원
10	청양구기차원애농협	고령농가 생산 차량 및 설비 일부 지원

본 조사에는 선정된 10개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역 분배를 감안하여, 즐거운밥상, 드림앤챌린지, 충남 교육연구소,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네 곳을 심층인터뷰 했으며, 충남 마을기업지원센터의 협조로 모범 마을기업을 추천 받아 그 중 백석올미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5개 기업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우수사회적기업	공모 사업
1	(주)즐거운밥상	• 천안시 공공급식(천안시 위탁사업) / 마사회 도시락 / 일반도시락 및 뷔페
2	(주)드림앤챌린지	• 여행자 / 소독업 / 카페(바이올렛) / 사이사웃예술단 / 거북이작업장(수제 비누, 향초, 디지털 도어록 등)
3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 / 도농교류 등
4	(사)충남교육연구소	• 연구사업 / 연수사업 / 지역공동체사업 / 학교지원사업 / 청소년분화학교 사업 등 • 수익창출은 청소년분화학교, 연구사업 등 공모사업 중심
5	백석올미(마을기업)	• 매실한과 / 매실발효액 / 매실장아찌 / 매실고추장 판매

인터뷰는 각각 3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발전단계별 심층 분석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사업발전단계별로 발생했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과 도움이 된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4. 조사결과와 함의

본 심층조사결과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경제적 조직적으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발견되었다.

첫째, 각 기업들은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여기에 준하여 사업 방향, 사업 내용 등을 설정하고, 사업 변경 다각화 및 사업 위기 등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수사회적기업	비전과 목적
1	(주)즐거운밥상	• 결식아동 공공급식의 질 확보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	(주)드림앤첼린지	•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친환경 농축업을 통한 협업적 공동체 조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4	(사)충남교육연구소	• 농촌학교 농촌교육공동체 농촌지역 재생
5	백석올미(마을기업)	•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협동심을 높이는 마을 협동경제 지향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목적이 사업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즐거운밥상의 경우 공간 확장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비롯된다. 처음 사업을 개시했을 때 공간이 매우 비좁아 공공급식 물량을 제외하고 외부 주문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공공급식은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 주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급식 제공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었지만, 즐거운밥상의 경우 외부 주문을 거절하고 공공급식에 집중했으며, 이 비전이 공간 확장이라는 중요한 사업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고 부지 확장 이후 현재는 주문하는 모든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드림앤첼린지의 경우 진행 중이던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대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개척해왔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이 재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입각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왔다.

특히 경영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지키려는 시도가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다. 즐거운밥상의 경우 공공급식 계약과 관련하여 매출 반토막, 계약조건의 급작스런 변경 등으로 경영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목적이 중요한 가치를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는데, 이 합의가 결과적으로는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내부 구성원으로 조합의 부의 분배 문제와 관련,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내의 극심한 갈등을 감내했고, 백석올미의 경우 한과과정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구성원에게 문서를 통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공체조, 우리마을사랑운동 등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소통의 방식을 모색했으며, 출자자들을 설득해 한과공장의 최종적인 재산권을 마을로 귀속시켰다.

둘째,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권한이 분배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즐거운밥상은 전신인 자활기업에서부터 회의를 정례화했으며, 재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구성원의 역할, 중요한 사업적 결정 등을 회의 구조속에서 결정하고 결정사항은 모두 문서로 남겨서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중간관리자를 대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역할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있다. 이 결과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상호간에 분명하게 인지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체가 다원화되었다. 드림엔젤런지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표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팀장회의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월 1회 전체 집합교육을 통해 미션과 비전을 강조하고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결정 배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부모 상담 및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직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연구소의 경우 회원들이 연구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업들을 결정하고 소장, 부소장 및 사무국 직원들이 그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백석올미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큰 결정을 하고, 전체조합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주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하여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들이 다각적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과 업무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즐거운 밥상은 매월 1회 구성원 전원이 시장조사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평가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메뉴다각화를 위해 두 달 동안 구성원 전원이 주 2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법을 전수받아 현재는 뷔페, 고급 도시락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운전면허, 회계, 조리사 자격 등 구성원이 자격증이나 외부교육을 원하는 경우 전액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인 교육



을 실행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수당 등을 철저히 계산하는 등 동종업계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드림앤첼린지는 각 사업파트의 팀장들에게 혁신적인 기획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교육연구소는 연구프로젝트를 회원들의 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주로 초등교사)들의 연구역량이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부 등과의 MOU를 맺어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직원의 대부분이 학위과정,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연구소를 거쳐간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관련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백석올미의 경우 전 직원에게 명함을 지급하고 모두가 백석올미의 사장임을 인식시키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간 농촌의 고령자들이 1차 산업 종사자로 역할이 한정되었던데 반해 적극적으로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격상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다양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규모에 적절하게 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제공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이 기업의 발전단계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속가능한 고용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신청에 있어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신청한 점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 능력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특징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개 기업 모두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각 조직의 대표들이 모두 지역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대표 혹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동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들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판로가 확장되고, 자체적으로는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게 되며, 내 외부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기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 및 지원 사업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

5개 기업의 합의내용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이 사회적 자본 동원 가능성 및 능력을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목적 달성 척도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하는지 여부도 이때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구성원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적 역량이 핵심적이지만 그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공인기관에서 제 공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역량강화 지원의 확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참여가 지역사회와 개별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네트워킹의 성과는 단기간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첫째, 개별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둘째, 지역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 인력,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중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개별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지원사업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역차원의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서는 역량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몇 년의 결과를 평가하여 확산을 고려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운영될 때 그 가능성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고 내부 역량이 강화되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사업적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람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Color Village? 계룡 삼채피망청정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편집자 주] 충남 계룡시 영서면 광석리에는 '계룡 쌈채 피망청정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일명 '광석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이름이 뭔가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알고 보니 계룡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지난 5월 말에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문향심 팀장을 직접 찾아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실고자 한다. 정보화마을의 현황 주소와 방향, 그리고 마을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아니고 팀장이냐구요? 그건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쌈채피망청정마을! 이름이 참 재밌고 특색이 있는데...

옛날 마을 한복판에 넓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농번기에 일을 하다가 점심이나 새때에 둘러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을 이름은 '나분들'이라 불렸다고, 그 후 '광석(廣石, 넓은 돌)'으로, 다시 '광석(光石, 빛나는 돌)'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마을입구에 있는 100년된 느티나무 밑에 넓은 돌이 있어요.

쌈채피망청정마을은 지난 2007년도에 정보화마을 신청할 당시 태어난 이름인데, 계룡의 대표적 이름이 뭘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정작 본인은 나중에 일을 시작해서 정확한 내막을 모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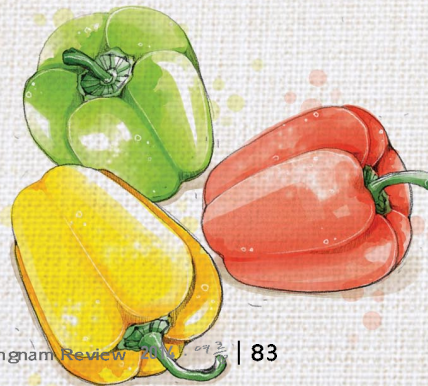
(인터뷰 중인 문향심 팀장님)

마을 현황은?

광석마을은 총 40여가구 약60명이 살고 있고, 정보화마을 회원은 12가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문객 체험이 있으면 함께 일을 나누어 진행하고, 필요한 교육도 듣고 공유하게 되죠. 비록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험행사가 있는 날이면 나오셔서 도와주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이한 점은 남성회원은 위원장 남편 한 명 뿐이라는 거.

정보화마을 지정, 그리고 사업은 어땠는지?

처음 2011년도에 이곳에 들어와서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하니 회원간 모이는 일도 없고 체험은 감자와 딸기가 전부더군요. 2007년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구요.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2010년도까지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위원장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꺾는 바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교육 받고 조언도 구하며 마을사업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인드교육도 가지면서 나온 얘기가 '우리 마을엔 색깔이 없어' '그럼 우리가 색깔을 만들까요?' 해서 잡은 컨셉이 바로 "색깔"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건 2012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 입히는 작업, 즉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시기는 올해까지 진행될 꺼고... 내년부터는 1년 사계절 색깔있는 마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팀장님을 꺾인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송무선 위원장이구요. 아~ 여자분이세요. ^^ 이 마을 토박이시고 어느 누구보다 마을에 애착이 많으시고 추진력도 정말 좋아요.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을 시작하시더니 그 뒤에 저를 데리고 오셨죠! 이곳 정보화마을 건물도 위원장님이 버섯농사 지었던 부지에 공짜로 사용하게 해서 지은 거랍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은 일들을 위임해주셔서 어찌다보니 제가 위원장님을 '배후조정' (?)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하하하)



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



마을 바로 옆으로 호남선이 지나간다



마을에 붙은 체험행사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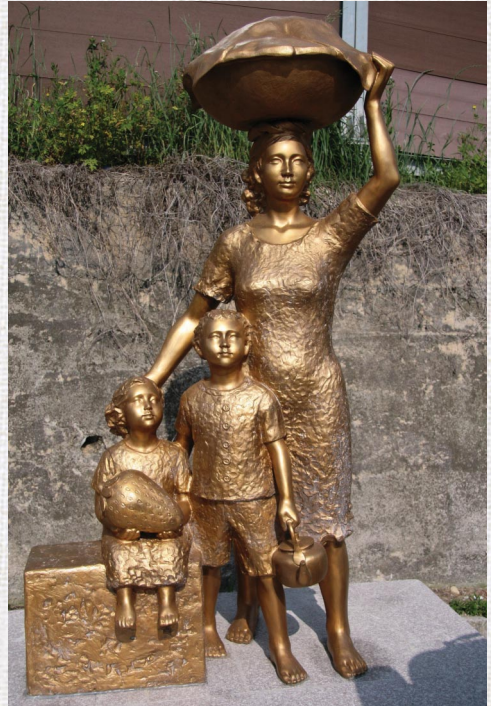
이곳이 고향인 위원장님과 달리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가 고향이에요. 팽복항이 눈감고도 그려지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 이 마을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죠. 마을에 민집이 생기면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이랍니다.



지금도 계속 체험객이 많이 오는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약3,000명이 다녀갔죠. 연간 매출은 약 3,200만 원 정도. 물론 잘 나간다는 여타 체험마을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4년 전 500명, 매출 600만 원보다는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엔 체험장이 별도로 없어요. 괜히 사업도 안 되는데 건물만 짓기 싫었거든요. 마을의 콘텐츠가 건물의 용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물 지어놓고 콘텐츠를 구상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지난해에는 도농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 시리즈’를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구요. 올해는 1억 원의 3농혁신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컬러! 마을을 물들이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체험장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슬슬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체험하는 날에 비라도 온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하늘에 기도 좀 해라! 비오지 말라고~’ 이러시거든요.



〈마을 뒤편에 자리잡은 동상〉



〈그늘에서 잠시 쉬고 계신 마을주민〉



〈대부분의 마을 담벼락엔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럼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 시리즈와 딸기따기 체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을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각 계절별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계절에 맞는 의상색을 맞춰 입는거죠. 봄은 녹색, 여름은 빨강, 가을은 노랑, 겨울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체험! 빨강에 미치다’, ‘컬러푸드 힐링을 말하다-레드’, 가을은 ‘사랑, 에너지 옐로우’, 겨울은 ‘체험, 화이트에 미끄러지다’ 등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했죠. 다만 아직 봄은 콘텐츠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색깔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 - 출처 : 마을 홈페이지〉

물론 상시로 운영되는 다양한 컬러푸드 체험도 있는데, 피망이나 상추, 고추와 딸기따기 체험, 고구마와 감자 캐기, 포도와 가지 수확 등은 계절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루코스 체험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데 1인당 25,000원입니다. 1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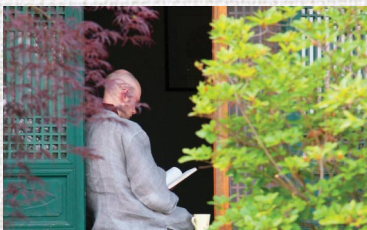
#컬러푸드(Color Food)란?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예를 들면 노화를 예방하는 검은색 식품(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메밀 등), 면역력과 항암 효과를 높이는 주황색 식품(당근, 호박, 고구마, 감 등), 혈관과 위장을 깨끗하게 하는 초록색 식품(녹차, 부추, 브로콜리, 솔잎 등),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하얀색 식품(마늘, 양파, 콩, 흰 채소), 심장병 예방과 독소를 제거하는 보라색 식품(포도, 자두, 블루베리, 가지 등), 피부가 좋아지는 노란색 식품(오렌지, 옥수수, 자몽 등), 예뻐지는 빨간색 식품(토마토, 사과, 석류, 고추 등)이 있다.(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컬러푸드 해설과 교육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한다)



다른 체험프로그램 중에 특이한 게 있다면?

이 마을에서 10분만 이동하면 향적산 아래 무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를 견학하는 거죠. 무상사는 여느 절과 달리 외국인 승려와 수녀 등의 수행과 참선이 이루어지는 국제선원입니다. 일명 ‘푸른 눈의 스님’이 모여있는 곳이지요.

2000년에 창건된 무상사에는 현재 미국에서 온 ‘대봉스님’이 머물러 계시다고 합니다. 무상사 역사의 개척자라고들 한답니다.(필자의 호기심에 인터뷰 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우리가 아는 보통 절인데... 외국인 승려만 보여서 사실 신기하기도 했다. 무상사 홈페이지 www.musangsa.org 참조)



〈무상사 푸른눈의 스님〉



〈무상사 대웅전〉



체험객들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다양한 마케팅전략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다보니 단골 방문객(단체)도 늘었고요. '언제 또 하나 며 궁금해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사실 걱정이긴 해요. 마을에서 그만큼 수용하지 못하는데 무작정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역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소셜미디어, 블로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욕심내서 추진하고픈 사업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올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 특화사업에 뽑혔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마을주민들과 하고 싶은 사업은 국내 유일의 색깔있는 마을(Color Village)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있는 길(Color Road)에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벚꽃나무를 심을까 상수리나무를 심을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도 마을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마을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그들의 삶의 속도를 추월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마을주민들이 색깔이 없는데 색깔있는 마을이 될 수 없잖아요. 조금 앞서 간다고 치면... 딱 반발짝 정도! 그게 좋겠어요.

혹시 이 마을은 배우고 싶다... 또는 부럽다 하는 마을이 충남에 있다면?

마을도 좋지만 저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제 멘토이기도 한 홍성 용봉산체험마을의 엄기화 선생님, 그리고 아산에서 3개의 정보화마을을 맡고 계신 김금숙 선생님. 마을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마을주민과 모녀지간처럼 살갑게 지내면서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정보센터의 모습〉





시골 마을의 특성상 체험프로그램과 농산물판매 등이 주요 매출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는 다들 소농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사실 못해요. 전자상거래로 할 수 있는 특산물도 한정되어 있어서 팔 것이 없을 때에는 계룡에서 유명하다는 엿도 판매하고 있긴 해요. 이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농촌다움을 간직한 스토리텔링과 체험 콘텐츠가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색깔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구요.



“쌈채피망청정마을은 000이다?!”

계룡 쌈채피망청정마을은 색깔있고 성깔있고 맛깔나는 ‘Color Village’ 다!

사실 대한민국 농촌마을은 어디나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색, 이야기, 독특한 가치 등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이고 색깔이지 않나 하는 거죠.

또한 무엇도 아닌 것이 무엇(Color Village)이 되어가는 과정속에 마을주민들과 도시민, 그리고 관계기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러 색칠하는 곳이 아닌 서서히 스스로 물들어가듯 마을을 색깔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좋은 농촌마을들 많아졌어요. 그중에 우리 마을도 있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즐겨찾기 해주세요.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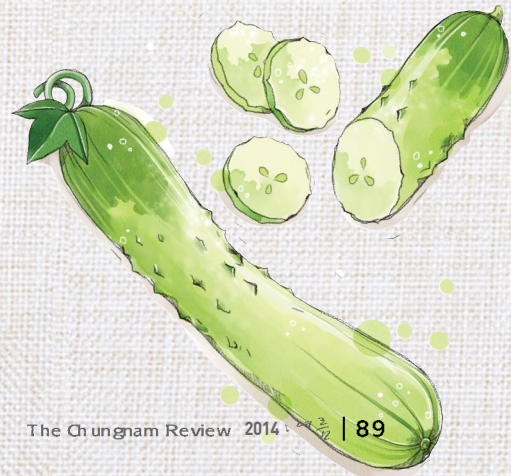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 ▶ 주소 : 충남 계룡시 엄사면 광석항한길 43-8
- ▶ 홈페이지 : <http://pm.invil.org/> (T.042-841-0074)



1. **기차로 오게 되면...** 계룡역에서 내려야 한다.
2. **승용차를 타면...** 호남고속도로 계룡IC로 빠져 나와 노산국도를 타고 계룡시 문예화관을 지나 광석리로 들어가면 된다. 인근 지역에서도 국도로 이동해 찾아가기 어렵지 않다(사실... 내비게이션 찍으면 끝!)





아우내(併川) 시장의 유래와 이동 과정 소고

글 ·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1. 들어가는 말

천안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병천면은 2012년 말 현재 36개리 85반(9개 법정리)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56.4㎢(주거지 0.8, 농지 11.8, 임야 38, 기타 5.8)이며, 인구는 2,958세대에 6,404명(남 3,296명 여 3,108명)이 거주하고 있다.¹⁾

아우내(併川) 시장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병천면 사무소 주위에 발달되어 있는데, 순대와 오이 그리고 잡곡으로 유명하다.²⁾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인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시장에서 3,000여 명의 시장꾼들이 호서지방 최대의 항일독립만세운동을 벌려 한국의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³⁾

그래서 그런지 아우내 장터에서 5일장이 서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1) 2013.1.1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2) 辛相龜, 『아우내 단오축제』, 대한정판인쇄사, 1998.12. pp.123-124. p.159. ; 천안시, 『천안의 맛 자랑』, 2005.11. p.55. p.216. 일제시대 말부터 아우내 시장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병천순대는 맛이 담백하고, 몸에 좋은 단백질·지방·비타민 B·철분 등 각종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으며, 값이 비교적 저렴하여 천안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오이는 병천면 봉항리, 관성리, 도원리에서 많이 생산 되는 데, 싱싱하고 맛이 좋아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

3) 김진호, 「忠南地方 3.1運動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2. p

아우내 시장의 부지는 2012년 말 현재 1만 1283㎡에 달한다. 그 중 토지는 1546㎡이고, 장옥 건물 면적은 1257㎡이다.⁴⁾

아우내 재래시장의 장옥이 대부분 1919년 아우내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성되어 건물 노후가 심각해 시장 상인들이 화재와 재난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⁵⁾

필자는 아직까지 아우내 시장을 조사 연구한 선행 논문이나 단행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방법을 통해 아우내 시장의 유래를 고찰하여 아우내 시장의 역사적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정립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아우내 시장의 유래와 이동 경로

1) ‘아우내’ 지명 유래

천안은 충남의 수부도시로 교통이 편리하여 조선시대 중기 이후 5일장인 재래시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환장(1,6일), 입장장(4,9일), 병천장(1, 6일)을 들 수 있다.⁶⁾

병천은 멀리는 청주·진천·조치원으로 통하고, 가까이는 수신·성남·목천으로 통해 예로부터 장꾼들이 많이 모여들어 인근에서는 가장 큰 장터로 부상했다. 그리하여 기미년 3.1만세 운동 때에는 유관순(柳寬順)·김구응(金球應)·조인원(趙仁元)·이백하(李栢夏)·유중무(柳重武)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져 항일독립만세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고,⁷⁾ 지금부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시장(牛市場)이 발달하여 전국에서 모여든 소장사들이 소를 많이 거래했는가 하면,⁸⁾ 해마다 봉화제와 단오축제가 개최되는 등으로 아우내 장터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⁹⁾

아우내(倂川)란 지명은 ‘시내(川)가 ‘아우른다(倂)’는 데서 유래되었다. 아우내는 구계(九溪)·아내·아오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있어 ‘아내장’이라 흔히 부른다. 여기서 ‘구계’란 철이 이내에서 생산되

4) 2013.1.2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5) 김병한, “아우내 병천시장 개선 절실”, 충청일보, 2005.12.20일자. 2005년에 병천시장 43개소의 장옥 임차인들이 사용허가 신청시 시에 손해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했으나 화재보험회사와 일반 보험사에서 시장 장옥이 노후(목조)하다는 이유로 손해보증계약을 거절해 증권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제 때에 장옥 사용료를 부과, 납부하지 못한 시와 임차인은 부득이 임차인들이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부과 받았다. 그리하여 천안시가 장옥관리 차원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지방행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했다.

6) 천안시지편찬위원회, 『천안시지』(상), 천안합동인쇄공사, 1997.11.30. pp.1184-1185.

7) 민병달·이원표 편저, 『천안독립운동사』,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5.8.28. pp.167-173.

8) 金駿翼, 『아내장 순대-우리 고장의 특색음식』, 대한정판인쇄사, 1998.12. p.68. 아내장은 우시장으로도 유명했다. 쇠전의 활기는 멀리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쇠장사꾼을 유인하여 그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9) 辛相龜, 전게서. p.49.

므로 철내의 옛 이름이다. 그리고 성거산(聖居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시내가 목천현의 남쪽 10리에 이르러 복구정천(伏龜亭川)과 산방천(山方川)이 합류하여 병천(併川)이 되므로 두 물이 어울린다고 하여 '아내'라고 한다. 또한 '아우내' 또는 '아오내'란 아홉내에서 온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¹⁰⁾

2) 아우내 시장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

아우내 시장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보면, 아우내 시장은 목천현(木川縣) 근동면(近東面) 지역으로 1895년 지방행정 편제 때 갈전면(葛田面)에 속해 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일병천리, 이병천리, 일한천리, 신촌, 서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병천리(併川里)라 하고 갈전면에 편입시켰다.

1942년에 갈전면이 병천면으로 명칭이 바뀌어지자 병천면 병천리가 되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¹¹⁾

3)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중반에 개설

그러면 아내 장 즉 아우내(併川) 시장은 언제 처음으로 개설되었을까?

아우내 시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서 각종 농산물이 많이 생산 출하되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설 시기에 대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언제 처음 개설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기준(趙機濬) 교수가 지은 『한국 경제사 신강』에 의하면, 조선시대 초기에도 지방에 향시가 있었으나, 조선정부의 억압정책으로 인해 향시에서의 상거래는 활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선조 이후의 대동법 실시와 숙종대의 화폐정책에 자극 받아 상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18세기 후기에는 행정관부의 소재지인 각 도, 읍과 선박의 귀착지인 연안포구, 내륙의 교통중심지인 물화 집적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상업망이 형성됨에 따라 점차 지방상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¹²⁾

그리고 『중종실록(中宗實錄)』권 27, 중종(中宗) 11년 11월 정미조(丁未條)를 보면, 조선시대 장시(場市)는 15세기 말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먼저 개설되었고, 중종(中宗) 11년인 1516년에는 충청도에서도 장시가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³⁾

10) 2013.1.2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11) 2013.1.1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사무소 홈페이지 우리 마을 소개 일반현황 참조.

12) 趙機濬, 『한국 경제사 신강』, 일신사, 1996.8.31, pp.230-231.

13) 『中宗實錄』권 27, 中宗 11년 11월 丁未條, 15책 p.241. 政院曰 忠淸道 觀察使 權敏手 請於道內設場門 令戶曹議啓則又農家之有 是固大幣 姑從民願 只於忠淸設場 他道則勿設可也.

또한 조선총독부가 1929년에 편찬한『조선의 시장경제』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군수를 감독하는 시찰관인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朴文秀, 1697-1751)가 그 조상의 묘 앞에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그런가 하면 1808년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深象奎) 등이 순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5, 명전조(名廩條), 향시(鄕市)에는 충청도에 157개 향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우내장은 보이지 않으나, 인근의 직산(稷山) 덕평장(德平場)과 은진(恩津) 강경장(江景場)이 기록되어 있다.¹⁵⁾

그리고 김대길(金大吉)이 『관동사학(關東史學)』4집(관동대 사학회, 1989)에 발표한 「조선후기 지방 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면, 조선시대 장시의 개설은 양난을 경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7세기 말-18세기 초에는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지에도 개시(開市)되는 횡수는 적고, 상품교역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반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한편 조선시대 정조(正祖) 3년인 1779년에 편찬된 『목천현읍지(木川縣邑誌)』 허시조(墟市條)와 정조(正祖) 3년인 1779년에 안정복(安鼎福)이 편찬하고 1817년에 조국인(趙國仁)과 이 지방 유사들이 증보속찬한 『대록지(大麓誌)』 허시조(墟市條)에는 아우내 시장이 목천현의 동쪽 15리에 있으며 1일과 6일, 5일장으로 개장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리고 서유구(徐有渠)가 1845년에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제3권, 1908년에 남정철(南廷哲)·이재곤(李載崑)·이중하(李重夏) 등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부록편 165번 등의 기록에도 병천장은 1, 6, 11, 16, 21, 26일에 개시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⁸⁾

따라서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초반부터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에 5일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아우내문화원이 2002년 12월 25일에 발간한 『2002 아우내 민속놀이』를 보면, 아우내 시장(아내장)이 1750년에 개설되었다고 한다.¹⁹⁾

14)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經濟』, 1929. p.192. 二百年前繡衣御使郡守お監督せし視察官) 朴文秀が祖先の墳墓の前にて開市せしに始まる. 最初河邊に在り道洪水お蒙り且道路改築の必要に依り大正三年四月現位置に移れり. 取引は主に附近農民の日用品な常くのみにして出場商人が例年其場所に常設店舗お設くる傾向は現在の如き制度の惑は絶滅の機お早むるものか.

15) 徐榮輔·深象奎 외 공저, 『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5, 명전조(名廩條). 1808.

16) 金大吉, 「조선후기 지방 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관동사학(關東史學)』4집, 관동대 사학회, 1989. p.31.

17) 『木川縣邑誌』, 1779.; 趙國仁 외 공저, 『대록지』, 1817. 東俗以墟市謂場日中交易而退縣內場四日九日開併川場在縣東十五里一日六日開.

18) 徐有, 『林園經濟志』제3권, 1845.; 1908년에 南廷哲·李載崑·李重夏 등 편찬, 『增補文獻備考』, 1908.

1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전공 엮음, 전게서, p.101.; 金駿翼 편저, 전게서, p.69. 박문수 어사가 영조 32년인 1756년에 타계하기 수년전에 스스로 묘지를 선정하고, 비묘적으로 아우내 시장을 개설했다는 일화를 고려해 볼 때 1700년대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아우내 장터의 이동 과정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김춘식 교수가 2005년 12월 10일 단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천안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인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 목천·병천 지역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아우내 장터는 초기에 병천리 234(현재 240 : 모든리아파트 1동 남쪽 개천가)번지와 289(현재 289-1 : 모든리아파트 1동 북동쪽 50m 지점) 번지의 일대 즉 병천교에서 북쪽의 아우내시장 쪽으로 50-100m 사이에 위치한 별판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천가의 아우내 장터가 자주 홍수를 당해 침수되는 바람에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14년 4월에 초기 시장 북쪽의 50-100m 지점에 위치한 300(현재 300-1 : 주택지)번지·301(현재 301-1 : 주택지)번지·302번지(현 모든리아파트 2동 중앙) 일대로 옮겨졌고, 바로 이곳에서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항일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후 시장이 점차 커지자 1928년 무렵부터는 장터의 위치가 또 그 북쪽 20-30m 지점의 164(현재 164-1)번지, 166(현재 166-1)번지, 169(현재 169-1)번지, 293(293-1)번지, 294(294-1)번지 일대 즉 현재의 아우내 장터로 옮겨져 지금도 5일장이 서고 있다고 한다.

3. 나가는 말

병천면은 아우내 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이 대도시의 시민들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순(柳寬順), 조병옥(趙炳玉) 등 항일독립투사들을 많이 배출하여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

아우내(併川)란 지명은 성거산(聖居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시내가목천현의 남쪽 10리에 이르러 복구정천(伏龜亭川)과 산방천(山方川)이 합류하여 병천(併川)이 되므로 두 물이 어울린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아우내는 구계(九溪)·아내·아오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있어 '아내장'이라 흔히 부른다.

경상도와 한양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우내 시장은 18세기 중반부터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에 5일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상인들이 청주·진천·안성·조치원·예산 등에서 지역 특산물과 소를 몰고 와 장을 형성했다.

아우내 시장은 처음에 병천리 240번지와 289-1번지 일대의 별판에 형성되었다가 홍수를 당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북쪽으로 두 차례나 이동해 현재의 위치에 개설되었다.

아우내 시장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순대와 오이 그리고 잡곡이 유명해 5일 장이 서는 날은 시장을 보러 나온 시장꾼들로 북적인다. 평상시에도 병천순대를 맛보기 위해 아우내 시장의 순대거리 양쪽에 즐비한 순대집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2004년 4월 1일부터 고속열차(KTX : Korea Train Express)가 천안·아산고속철도역을 통과하고, 2005년 1월 20일부터 전철(電鐵, Electric Railway)이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지는 바람에 수도권 주민들이 병천을 많이 찾고 있어 병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위에 관광자원이 많고, 해마다 봉화제와 단오축제가 개최되는가 하면, 천안시가 지역 대표 향토음식인 '병천순대'를 명품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3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우내 시장(병천시장)은 조선시대 내륙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그 명성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1. 『中宗實錄』卷 27, 中宗 11年(1516年) 11月 丁未條 15冊.
2. 『木川縣邑誌』上卷, 1779.
3. 『大麓誌』上卷, 1817.
4. 徐榮輔·深象奎, 『萬機要藍 財用編 5』, 名塵條, 鄉市, 1808.
5. 徐有集, 『林園經濟志』第3卷, 1845.
6.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 1924.
7. 朝鮮總督府, 『市街地の 商圈』, 1926.
8.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經濟』, 1929.
9. 金大吉, 『朝鮮 後期 地方 場稅에 대한 基礎 研究』, 關東大 史學會, 『關東史學』4輯, 1989.
10. 오세창, 『천안의 옛지명』, 천안문화원, 1989.10.15.
11. 閔丙達·李元杓 編著, 『天安獨立運動史』,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5.8.28.
12. 趙機濬, 『韓國經濟史 新講』, 日新社, 1995.8.31.
13. 金大吉, 『朝鮮 後期 場市 研究』, 國學資料院, 1997.
14. 천안시지편찬위원회, 『천안시지』(상), 천안합동인쇄공사, 1997.11.30.
15. 辛相龜, 『아우내 단오축제』, 아우내문화원, 1998.12.
16. 천안문화원, 『천안의 땅이름 이야기』, 도서출판 한국문화, 1999.12.25.
17. 김진호, 「忠南地方 3.1運動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2.
18. 金駿翼 편저, 『아내장 순대 : 우리 고장의 특색 음식』, 아우내문화원, 2002.5.7.
19.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아우내 민속놀이』, 청동거울, 2002.12.10.
20. 천안시, 『천안의 맛 자랑』, 2005.11.
21. 김병한, "아우내 병천시장 개선 절실", 충청일보, 2005.12.20일자.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¹⁾

글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도시 개관 - 지리와 역사〉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는 브라질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e Sul)주의 주도(州都)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위도상으로 정확히 남위 30도선이 도시를 가로지른다.

포르투갈어로 “유쾌한 항구”라는 뜻의 지명이 말해주듯 포르투알레그리는 천혜의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브라질 남부 대평원을 흐르는 다섯 개의 강이 과이바(Guaiba) 호수로 합류하고 과이바 호수는 다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석호인 파투스 호수와 연결되는데, 포르투알레그리는 여러 강들이 합쳐지는 과이바 호수 동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1) 포르투알레그리 현지 답사 기회를 만들어준 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관실에게 감사드린다.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포르투알레그리로 표기함.



1700년대 중반 스페인과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곳에 군사요새를 건설하면서 도시가 처음 형성되었고, 천혜의 항구로서의 입지적 이점 덕분에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들의 집산지이자 교역지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19세기 초부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아프리카 노예들이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났고,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브라질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주변의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 구역도 광역화되었다.

2010년 현재 포르투알레그리 시의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인구규모로 브라질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근 교외지역을 포함한 도시권 인구는 약 450만 명으로 브라질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여 브라질의 다른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으며, 도시 인구의 약 80%가 백인으로 백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시의 문화, 교육, 하부구조, 평균 수명 등 생활환경 및 삶의 질 측면에서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보다 우월하며, 남미 도시의 전형적 특징인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포르투알레그리는 브라질에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로 손꼽힌다.

〈사진 1〉 포르투알레그리 도시 전경



출처 : <http://www.portoalegre.travel>

도시 경제 -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의 중심지

포르투알레그리는 항구도시로 발전한 만큼 지금도 물류 유통업이 발달되어 있다. 주변 농촌과 목장에서 생산된 곡물, 쇠고기, 가죽 등이 포르투알레그리 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된다. 포르투알레그리는 신발, 석유,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도 발달되어 도시경제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제조업 비율은 비공식 부문이 비대하게 발달한 남미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의 대표 석유회사 이피랑가(Ipiranga)의 본사와 공장이 이곳에 있으며, 교외 지역에는 다국적 회사 GM의 자동차공장과 Dell 컴퓨터회사 공장 등이 있다. 리우그란데두술 연방대학을 비롯해 이 지역의 대학과 병원의 수준이 높은 관계로 교육산업, 의료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최근 들어 정보통신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사진 2〉 포르투알레그리 시청 및 시청 앞 광장



남아메리카 전체 지도 속에서 볼 때 포르투알레그리는 브라질 남부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이어지는 남아메리카 대평원 팜파스(Pampas)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를 구성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인구 밀집 지역의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이점이 포르투알레

그리의 산업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높여주고 있다

좋은 입지 환경과 탄탄한 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전체의 골칫거리인 빈부격차 문제에서 포르투알레그리도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서 대규모 슬럼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도시 빈민들의 생계와 주거 문제는 포르투알레그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

주민 참여 -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도시

포르투알레그리란 도시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브라질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 헌법이 제정된 직후인 1988년 늦가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브라질노동자당(일명 PT당, 브라질 전임 대통령 룰라와 현 대통령 호세프가 이 PT당 소속임)의 후보 올리비오 두트라(Olívio Dutra)가 포르투알레그리의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PT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데 기여한 풀뿌리 조직 중인 하나인 포르투알레그리 마을단체연합(UAMPA: Union of Neighbourhood Associations of Porto Alegre)은 새로 당선된 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제안하였다.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막상 시장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두트라 시장은 어차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 제안을 수용한다. 그래서 1989년부터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의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하여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으나, 민주화와 아울러 진행된 브라질 중앙정부의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예산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점차 높아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도시의 유력 정치인이나 토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공무원

〈사진 3〉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총회 모임



(출처 : 포르투알레그리 시청 홈페이지 <http://www2.portoalegre.rs.gov.br>)

들의 행정 편익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던 관행 대신, 평범한 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도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이루어지고 풀뿌리 주민 조직들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도시 행정 및 정치에서 소외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여성이나 저소득층, 저학력층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도시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의 비율도 계속 높아졌다. 주민들이 우선 예산 배정을 요구한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초기에는 빈민 밀집 지역의 위생과 도로포장 분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택과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면서, 이 제도는 브라질 내에서 PT당이 집권한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갔으며, 곧 이어 보수 계열 정당이 집권한 도시들로, 그리고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도시들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 세계은행이나 유엔 해비타트 같은 국제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직접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또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지방정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포르투알레그리를 비롯하여 집권했던 여러 지방정부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PT당은 브라질 국민들로부터 수권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자당 출신 룰라 대통령을 당선시켜 브라질 집권당이 되는데 성공한다.

사회 운동 - 세계사회포럼의 주도 도시이자 인권 도시

포르투알레그리는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주도하는 도시로도 유명하다.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 집단들은 세계화를 추동하고 옹호하는 국제기구들의 총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반대 시위를 하곤 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개최 시기에 맞추어 이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포럼을 별도로 열기 시작했다. 포르투알레그리는 세계사회포럼의 첫 모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회 연속 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2005, 2010, 2012년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사회포럼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 선진국을 상징하는 북부(the North)국가의 도시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최고 정치지도자와 기업 CEO 등 글로벌 엘리트들이 모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사회포럼은 개발도상국을 상징하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를 필두로 주로 남부(the South)국가의 도시에서 전 세계의 NGO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서 세계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이 철통같은 경비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데 반하여, 세계사회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검소하게 진행되며 거리와 광장에서 축제 형식의 모임을 열고 있다.

포르투알레그리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사회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직접적 배경에는 이 도시 정부와 리오그란데 두술 주 정부의 집권당인 PT당이 있다. 그런데 PT당이 이 지역에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현대사와 관계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때 브라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을 만큼 자주성이 강하다. 여러 풀뿌리 주민운동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1970년대 브라질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가장 힘차게 나타났던 곳도 이 지역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PT당이 집권할 수 있었고 또 세계사회포럼을 주도할 수 있었다.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만 명의 NGO 활동가들과 참관자들이 이 도시에 모이는 관계로 도시 전체가 북적거린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방정부의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 수 많은 사람들의 숙식 효과로 도시 경제의 기여도도 높다고 한다.

현재 포르투알레그리는 브라질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의식도 매우 높다. 포르투알레그리 시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인권 정책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의 주범이었으나 지금은 지방정부 산하 조직이 된 경찰을 지역 주민들의 인권 옹호자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인 브라질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일 등에도 도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사진 4〉 발전소를 재활용한 문화센터로 2012년 세계사회포럼 개최 장소였던 Usina do Gasômetro

〈사진 5〉 2012년 포르투알레그리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 포스터



(출처 : 포르투알레그리 시청 홈페이지 <http://www2.portoalegre.rs.gov.br>)

도시 문화 - 가우쇼 문화의 중심지

포르투알레그리는 남아메리카의 광대한 목축지대인 팜파스 지역에 속해있는데, 이 지역 특유의 문화를 흔히 가우쇼(Gaucho)문화라고 한다. 가우쇼란 팜파스 지역의 주민 혹은 이 지역의 목동을 뜻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주로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주 출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목동들의 생활문화이기도 했던 전통적 가우쇼 문화에, 19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 대거 이주하면서 유럽 이주민들의 문화가 융합되었다. 오늘날 히우그란지두술 주민들은 브라질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가우쇼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이 스스로 말하는 가우쇼의 특징은 솔직담백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태도이다. 남성 중심의 보수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약자에게 관용적인 진보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성향이 과거 브라질로부터의 독립운동과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쉽게 연결되었다.

가우쇼 사람들은 이 지역에 풍부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숯불에 구워먹는 슈하스코(Churrasco)와, 쉬마향(Chimarrao)이라는 이 지역 고유의 전통차를 즐긴다. 포르투알레그리에는 슈하스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급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만, 길거리 곳곳에서 꼬치구이 형태로 팔기도 한다.

포르투알레그리에는 히우그란지두술 아트 뮤지엄을 비롯해 많은 박물관들과 전시관들이 있다. 가우쇼 문화의 중심 도시답게 브라질 국민들의 애송시인 마리오 퀴타나를 비롯하여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이 도시에서 배출되었다. 가을에 열리는 북페어는 매년 200만 여명이 참여하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북페어로 유명하다.

〈사진 6〉 포르투알레그리 도심 재래시장 Mercado publico (public market) 야경



(출처: 포르투알레그리 시청 홈페이지 <http://www2.portoalegre.rs.gov.br>)

〈사진 7〉 인테르나시오나우 구단 홈경기장이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경기장



(출처: Internacional 구단 홈페이지 <http://www.internacional.com.br>)

포르투알레그리 시민들은 다른 브라질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축구를 열광적으로 즐긴다. 세계적 축구스타 호나우지뉴의 고향이기도 한 포르투알레그리에는 브라질 1부 축구리그 세리에A에 속한 두 개의 명문 축구클럽이 있다. 인테르나시오나우(Internacional)와 그레미우(Grêmio)가 바로 포르투알레그리를 연고 도시로 하는 축구클럽이다. 이 라이벌 두 팀이 맞붙는 경기는 두 팀의 이름을 따서 그레나우(gre-nal)더비로 일컬어지는데 이때는 같은 도시 시민이지만 인테르나시오나우 팀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은 팬들과, 그레미우 팀의 상징인 청색과 흑색 줄무늬 옷을 입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진다. 과이바 호변에 위치한 인테르나시오나우 클럽 홈구장인 베이라-히우 경기장은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월드컵 개최 경기장으로서 선정되었고, 우리나라와 알제리의 경기가 여기서 열리기도 했다.

도시 환경 - 아름다운 석양의 도시

포르투알레그레 시가지는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항구와 시청, 주요 문화시설들이 밀집한 구 시가지 구역이 도시의 정치·경제·문화적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도심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성당, 박물관, 재래시장 등이 밀집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도시의 빈곤층들이 도시 외곽 지역에 슬럼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데 비해 부유층들은 시가지 외곽 언덕에 자리 잡은 유럽풍 전원주택지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도심과 상류층 주거지역에는 드넓은 공원이 있고 거리에는 시원한 가로수들이 자라고 있다. 특히 도심 동쪽에 있는 곤칼로

드 카르발류 거리(Rua goncalo de carvalho)는 오래 전에 가로수로 사용한 남아메리카의 특유의 티푸아나(tipuana)나무가 거목으로 자라 도시 한 복판에 거대한 숲길이 조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힌다. 이 거리는 생태문화환경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이 거리의 일부를 개발하려는 도시 정부와 도시 숲을 보존하려는 환경단체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르투알레그리는 브라질에서 도시 단위의 재활용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도시이며, 브라질 최대 풍력 에너지 생산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브라질의 가장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자처한다.

과이바 호수의 동쪽 연안에 자리잡은 포르투알레그리는 자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의 도시이다. 특히 과이바 호변에 위치하고 있는 Usina do Gasômetro 문화센터 주변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일몰 광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이 곳은 과거 전기를 생산하던 발전소였는데, 이 발전소가 폐쇄된 후 극장과 전시장이 있는 문화센터로 바뀐 곳으로 세계사회포럼 개최장소로 자주 이용된다.

이처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포르투알레그리에도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슬럼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높은 실업률, 불편한 교통, 열악한 주거와 상하수도 시설 등 많은 도시 문제를 가진 이 슬럼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포르투알레그리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고, 세계사회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도시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시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이강국,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마니타스, 2005
 Wampler, Brian 2007.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Contestatio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Penn State University Press
 Gret, M. and Sintomer Y. 2005. The Porto Alegre Experiment, Zed Books
<http://www.participatorybudgeting.org/>
http://www.portoalegreuide.com/map_english.html
<http://www2.portoalegre.rs.gov.br/> (포르투알레그리 시청 홈페이지)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구축에 관한 소고: 민주적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글 ·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I. 사회적 합의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여,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존재는 장자크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고(장 자크 루소 저, 이환 역, 2000: 19-22), 존 로크(John Locke)에게로 이어져 근대 유럽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¹⁾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인 의회민주주의는 의회의 타락이나 다수에 의한 소수의 무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다수결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수결원칙이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각 개인의 의견 충돌이 일어 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된 의사결정방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전제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 첫째,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즉, 다수자의 의사표시로 결정된 사안도 가능한 한 반대하는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1)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발상은 공공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일반의지에 따라 국가공동체 또는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다. 루소는 개인의 주권은 분할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계약을 맺어 힘을 집결한 정치체의 최고의를 일반의지로 보았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각각의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인간이 구성한 사회 역시 각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계약에 의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루소의 ‘만인평등사상’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적 사상으로 계승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적 토대를 형성하였다(장 자크 루소 저, 이환 역, 2000: 19-22).

그러나 현대의 다양한 정치·행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수결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영평 외(2009)는 최근 발생하는 공공갈등구조가 종래 정부-주민의 구조뿐 아니라 주민-주민, 주민-자치단체장-지방의회 등의 복잡·다양한 갈등구조로 진화된 갈등 양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갈등의 주체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문제해결 역시 다양한 갈등주체를 포함하여야하므로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완전한 문제해결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최근의 공공갈등이 이해갈등, 가치갈등 그리고 신뢰갈등 등의 복합화 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갈등주체들의 관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갈등주체들 간의 설득과 동의기반의 합의 형성적 접근(consensus building approach)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갈등 문제해결의 효과를 갖는다. 공공갈등을 소송과 같은 강제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듯 복합화 된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성공적인 정책의 주체이자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가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주민은 정부의 의사결정, 집행과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주민을 비협조자로 간주하면서 관계부정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김도희, 2013: 31-32). 따라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도윤, 2009: 1147-1149 참조).

여기서 사회적 합의는 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단순한 합의도출이 목적이라면 참여와 숙의과정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 소통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산출물이다.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정당할 때 비로소 합의의 지속성과 실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자체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형성(social consensus building)은 사회적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의견 또는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교섭과 대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며 그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국토연구원, 2005; Susskind, 1999). 특히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는 힘에 의존하지 않는 갈등해소과정을 의미하며, 합의 수준의 제고는 이를 통해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Susskind(1999)는 의견이나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섭과 대화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여 서로 동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정의한다(윤종설, 2011: 246).

II. 사회적 합의의 가치전제로서의 합의민주주의

민주적 갈등관리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갈등, 납득하기 어려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란 힘에 의존하지 않는 민주적 갈등 해소과정과 합의수준 제고를 통해 공공갈등의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의 조건은 공공갈등 해소과정에 대한 규범의 내면화, 갈등 최소화과정에 대한 규범의 내면화 및 갈등최소화로 비용감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과정 자체가 집단적 학습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윤종설 2013: 118-131 참조).

따라서 공공갈등관리의 민주적 합의달성은 진정한 숙의를 기초로 할 때 가능하다. 숙의를 통한 합의민주주의는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계승·발전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Blaug, 1996: 56-57; Elster, 1998: 8). Held(2006)은 단순한 참여의 확대가 아닌 참여의 본질과 형태를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시도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숙의를 통한 합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민주주의 논의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즉, 숙의과정은 개인선호를 단순히 집약하거나 참여자 상호간 거래나 그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담화(unconstrained dialogue)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숙의의 목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자발적으로 실행 가능한 동의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Dryzek, 2000: 16-17), 참여자들 각자의 견해 차이를 넘어 생산적인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Dryzek and Braithwaite, 2000: 243).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결정과정 참여자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자극하여 공동이익의 탐색하거나 형성하도록 하는 전환적 힘(transformative power)이 된다. 이러한 전환적 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한 의사결정이 된다.

합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공동선(공익) 개념의 형성에 있다. 이때 공익을 이미 주어진 개별 선호들의 집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새로운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에서의 단순한 참여의 확대, 개별 선호들의 양적 증가만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합의민주주의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숙고의 과정과 공적 토의 그리고 이를 통한 선호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공익의 개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화 맥락을 찾으려 노력한다. 다시 말해 공익을 결정하는 정당성의 원천은 개인의 선택적 의지가 아닌 그것의 형성과정, 즉 진지한 숙의과정을 통한 합의 그 자체에 있다(Manin, 1987: 351). 합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개별 선호들이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제되고 성찰된(refined and reflective) 선호로 전환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한다(Held, 2006: 237-238).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 합의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민주

의는 결국 진지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모색하고, 의사소통적 권력을 통한 합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합의민주주의는 합의의 결과가 아닌 정당한 숙의과정으로서의 합의를 우선한다. 이는 숙의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성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선호를 형성하고 전환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할 때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의사소통적 권력을 정당하게 만들고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법이다. Held(2006)는 이와 관련하여 공적인 숙의과정이 개별 선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갈등관리는 자기 이익의 편향성을 배제한 갈등주체들 간의 이성적 논의를 통하여 갈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기책임이 전제된 실천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주체의 참여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참여 보다는 실질적인 참여와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그리고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진지한 숙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합의민주주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공공갈등관리의 최상의 가치이행이라 하겠다.

III.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와 선진사례

1. 사회적 합의형성과 절차

사회적 합의형성절차는 기존의 입법, 행정 사법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지 절대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 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은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이 아니라 다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정책 대안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안의 경우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윤종설, 2011: 34-35). 따라서 합의형성 프로세스는 합의형성에 이르는 수단과 절차를 말한다.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 단계 등으로 진화되면서 다양한 수단들이 운용되고 있다. 이 수단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시민참여구조와 수준이 선진화 될수록 '틀에 박힌 일방적 관계 → 쌍방적 관계 →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합의형성 수준을 높인다. 이렇듯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은 대체로 시작단계 → 프로세스 설계단계 → 합의형성단계 → 실행단계로 진행된다. 합의형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문제/이슈를 분명히 설정하고 정책참여구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들 합의형성 진행과정을 다시 세분화하면, 합의형성절차를 소집단계, 책임명료화단계, 숙의단계, 결

정단계, 합의실행단계 등 5단계로 설계된다. 제1단계 소집단계(Convening)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 책임역할 명료화단계(Clarifying Responsibility)는 합의에 기반한 과정이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를 포함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제3단계 숙의단계(Deliberating)는 효율적인 토론과 조사를 통해 합의형성을 도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제4단계 합의단계(Consensus Building)와 제 5단계 합의실행단계(Implementing Agreement)는 숙의과정을 통해 형성된 합의사항을 참가자들이 이행할 것을 문서화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각 합의형성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의 주요 요인을 제시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합의형성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

단 계	주 요 요 인
1단계: 회의 소집단계 (Convening)	1.1 합의형성 대화통로 결정 1.2 갈등영향분석(conflict assessment) 작성 준비 1.3 적절한 대표자 선정 1.4 운영자금 마련
2단계: 책임역할 명료화단계 (Clarifying Responsibility)	2.1 간사(facilitator), 조정자(mediators), 기록자(recorders) 역할 정립 2.2 참관인(observers) 참여자의 역할 정립 2.3 의제(agenda)와 규칙(background rule) 설정 2.4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options) 평가 2.5 우편리스트 작성
3단계: 숙의단계 (Deliberating)	3.1 창조적인 합의를 위한 숙의 추구 3.2 의사결정과정과 조사검토과정을 분리 3.3 전문가 자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3.4 중립인의 단일 기록안 여부 3.5 (필요시) 의제(agenda)와 기준 수준 3.6 숙의과정 완성
4단계: 합의단계 (Consensus Building)	4.1 성과공유(joint gains)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4.2 문서작성
5단계: 합의실행단계 (Implementing Agreement)	5.1 지지자들에 의한 추진

※주 : 본 절차는 특별그룹(ad Hoc Group)에 해당되는 사항임

※자료 : Susskind, L., McKernan S & Thomas-Larmer J. 1999.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A comprehensive to reaching agreement, SAGE Publication, pp.20-57; 윤종철(2011; 36) 재인용.

2. 사회적 합의기반 선진사례

여기서는 사회적 합의기반에 기초한 속의 민주적 갈등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의 공공토론위원회(CNDP)와 네덜란드의 KPD(Key Planning Decision) 제도 등 선진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윤종철, 2011; 67-77참조).

1) 공공토론위원회(CNDP: 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설립으로 주요 국책사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사전검토와 협의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반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였다. 국책사업의 제도적 결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비안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의 계획수립에 앞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제도형성은 환경보호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책에 관한 법률제정 등 참여적 합의형성과정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CNDP 도입 이후 프랑스 국책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문제해결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CNDP는



공공토론을 통해 국책사업 등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사업 확정 이전단계부터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다. 공공토론 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방식,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토의하여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토론은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고, CNDP의 요청에 따라 보완되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 부담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책임자인 것은 이들이 원칙과 사업 속행 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사업을 수정할 것인지,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를 밝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CNDP의 운영체계를 도식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회합의 과정으로서의 CNDP 운영체계

CNDP 개최가 전제된 높은 기준을 초과사업	CNDP 개최가 전제된 낮은 기준과 높은 기준 사이 사업	CNDP 개최가 전제된 낮은 기준의 사업
▼	▼	▼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집	사업자와 10명의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회, 도의회, 시의회, 지자체간 협력기구, 정부 인가를 받은 단체가 사업 공고 이후 2개 월 후 선택적 소집가능	환경 혹은 국토개발 관련 일반적 주민선 택권에 대한 공공토론 개최를 위해 환 경·지속가능개발부 장관과 유관 부처 장 관이 공동소집
사업목적과 주요특징 및 사업의 사회경제학적 중요성, 추정사업비, 중대한 사업영향요 인을 파악하는 사업자로 작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전달해야 함	소집 시 CNDP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자 료를 전달함	
2개월 후 CNDP 결정 및 근거제시 1. CNDP가 공공토론을 개최할 경우, 공공토론 개최 및 진행을 맡은 CPDP 구성 2. 사업자가 공공토론을 개최할 경우, CNDP가 개최 방식을 규정하고 공공토론이 잘 진행되는지 살핌 3. 사업자에게 CNDP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른 조정권고 4. 공공토론 개최 안 함		CNDP가 공공토론을 개최하고 CPDP 구성
CNDP가 공공토론 개최결정을 내린 후, CPDP 위원장 및 위원들을 4주 후 임명		
공공토론을 시행할만큼 내용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소집 신청을 수리한 CNDP의 지침에 따라 6개월 후 공공토론을 거친 자료 준비		
공공토론 시작일 및 공공토론 진행 일정 발표		
공공토론 진행(최대 4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CNDP의 결정에 따라 공공토론 2개월 연장		
공공토론이 종료된 지 2개월 후 CPDP 위원장이 작성한 토론 보고서와 CNDP위원장이 작성한 토론종합평가 발표		
CNDP의 토론종합평가 발표 3개월 후 사업자가 방침과 사업속행조건에 대한 사업시행결정을 내림. 이를 문서로 공고, CNDP 측에 전달, 필요 시 사업계획 수정안에 포함		
토론절차 이후 조치 · 차기 공공토론 개최일 또는 종합평가 발표일자 제시, 종합평가 발표 시에 CNDP 위원장의 임기(5년) 동안 공공의견수렴 명시 · 임기 동안 의견수렴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사정변경이 생기면 조정이 실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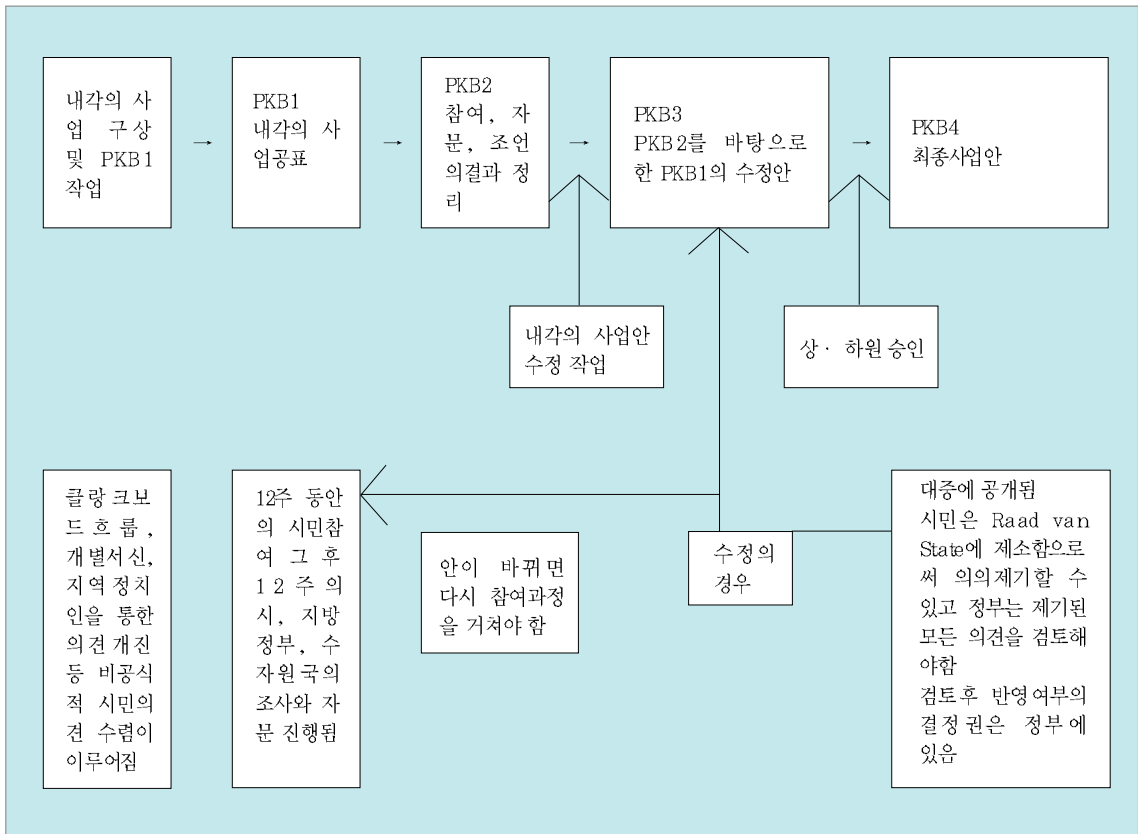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 2008/2009 보고서 참조.

2) KPD(Key Planning Decision)

네덜란드의 KPD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해관계자 및 기타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 참여를 통해 수렴하였다. KPD는 네덜란드의 국가 도로 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 공간계획에 관하여 주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광범위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국민의 참여를 위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KPD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며, 사실상 전 과정이 복잡한 내각 내, 내각과 의회, 그리고 내각과 시민간의 의사결정과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KPD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각 사업 단계별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계획안이 변경될 때마다 시민의 의견제시를 원활하게 해준다. 더불어 KPD는 정부에 대해서 정책수행에 도움을 주고,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KPD는 법적으로 의무 지어진 참여제도를 정부와 시민 모두 진지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대단위 국책사업 구상단계부터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정부-시민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공개를 통해 참여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KDP의 절차적 과정을 도식하면 아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사회합의 과정으로서의 CNDP 운영체계



자료: 김선희(2005),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윤종설(2011), p.76에서 재인용.

IV. 사회적 합의기반의 실현방안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구축의 전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합의형성은 공공정책의 의제설정과 결정단계에서 참여와 심의과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문제를 다룰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합의형성은 기존 갈등해결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결과 중심에서 갈등당사자들의 인식체계와 관계형성에 초점을 둔 과정중심으로 이동시킨다. 셋째, 사회적 합의형성은 합의형성 절차에 따른 갈등 핵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행당사자들까지 포괄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합의형성은 가치 갈등과 이익갈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합의의 근거를 도출하고 영역을 확장하는데 있어 사실 확인에 기반 한 갈등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형성은 대화와 심의과정을 통하여 이해관계와 선호가 수정되거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판단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윤종철, 2011: 59-60).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민주적 가치실현과 갈등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 실현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합의기반 실현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와 네덜란드의 KPD의 사례처럼 자율적 합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민주적 갈등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합의의 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갈등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은 법적 합의이행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 합의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자율적 합의 기구에서의 협의 절차와 방식은 공정성과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협의방식은 숙의과정을 통한 만장일치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수용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다. 이처럼 민주적 갈등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관련자들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발휘를 위해서는 협의절차와 방식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높을 때 숙의적 논의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적 갈등해결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합의기반 실현을 위해 앞서 III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참여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갈등관계에 참여하는 조직화된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는 소속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접점을 형성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갈등문제 해결을 위하여 테이블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자 대표는 소속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는 실질적인 갈등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민주적 갈등관리의 기본 전제가 된다.

셋째, 사회적 합의기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갈등문제의 해결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자율적인 접근이 적합하다. 복잡·다원화된 사회와 시민들의 욕구를 일률적인 규칙으로 조정·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숙의과정을 통한 협의와 합의 그리고 실천의 문제를 도의적·감정적 책임에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관리는 단순히 단편적인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숙의구조의 구성과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지원과 권한의 정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합의기반 실현은 합의의 공식화와 합의 이행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전제한다. 합의과정에서 갈등주체들이 숙의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하고, 합의 이행의 지속성과 합의안 추진과정의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주체들 간의 합의 내용은 반드시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단기적 실천이 아닌 합의된 결과를 얻거나 최종 합의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이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책임과 권한 등을 포함한 합의안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도윤 (2009).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성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147-1159.
- 김도희 (2013).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31-54.
- 김선희 (2005). 환경갈등관리 특성 및 합의형성 수준 분석: 서울와락순환고속도로사업을 중심으로. 14(1): 99-124.
- 김영평 외. (2009). 『지역공동체경영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윤종철(2013).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와 대표성 확보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3-35』.
- 윤종철 외(2013). 선진국의 국책사업정책: 경험과 시사점. 『KIPA 수시과제 2013-01』.
- 윤종철(2012). 사회적 집단갈등의 영향요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2-40』.
- 윤종철(2011). 공공갈등 유형에 따른 합의형성절차 설계. 『2011년 국무총리실 연구과제』.
- 장 자크 루소 저, 이환 역(2000).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Blaug, R. (1996). New theories of discursive democracy: a user's guid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22(1), 49-80.
- Dryzek, J. S. (2000). Deliberation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ryzek, J. S. & Braithwaite, V. (2000). On the Prospects for Democratic Deliberation: Values Analysis Applied to Australian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21(2), 241-266.
- Elster, J.(1998). Deliberation and Constitution Making. in Elster, J. e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d, D. (2006). Models of democracy. Polity.
- Manin, B., Stein, E., & Mansbridge, J. (1987).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15(3), 338-368.
- Susskind, L. (1999). A short guide to consensus building.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a comprehensive guide to reaching agree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남과 비교 않는 게 행복의 지름길



권오덕
前 대전일보 주필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닌
주관적인 것
한국인의 행복지수
OECD국가 중 꼴찌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건
財貨 아닌 시간
긍정적 사고방식
현실만족이 행복 열쇠
安貧樂道, 安分知足, 知足常樂
자세 필요**

나는 요즘처럼 시간의 빠름을 느껴본 적이 없다. 65세에 퇴임하고, 7년이 넘었건만 갈수록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고 있다. 차량 속도로 비유해 20대는 20km, 50대는 50km속도로 간다더니, 이젠 70km의 속도감을 느낀다.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간이 안 간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많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중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OECD국가 중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최근보도는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소중함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컴퓨터를 배우고, 건강한 삶을 다지기 위한 운동과 영양섭취, 그리고 여행과 취미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

을 초라하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과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지만 핵심은 열정이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가 60-70대, 23%는 70-80세, 6%는 80대에 의해 성취됐음은 노년의 열정에 기인한다.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된다. 적당한 영양섭취와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며, 친구를 자주 만나고,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지나치게 곤궁하다면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웬만한 사람이면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안 잡으면 가능하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고 자신에게 두면 된다. 조디 피코라는 작가가 쓴 행복의 수학 공식은 우리에게 행복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는 행복은 '현실 나누기 기대'란다. 분수로 표현하면 현실은 분자이고, 기대는 분모가 된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분자인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과 분모인 기대를 줄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 더욱이 돈 벌기 힘든 노인들에게는 분모, 즉 기대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 최상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기대가 너무 크다. 그 기대는 돈과 물질이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 사회는 부정과 비리,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탐한다. 세월호참사도 바로 이런 황금만능

풍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결국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에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돈과 물질에 대한 기대를 줄인다면, 다시 말해 분모를 줄인다면 우리의 행복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삶'이 실천되면 분모(기대)는 영이 된다. 반대로 분자(현실)는 무한대가 되어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 꼴찌수준인 것은 삶의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돈 때문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손꼽히는 히말라야의 빈국 부탄은 국민의 97%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한 불교국가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도 "행복하려면 남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실제로 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옛말에 안빈낙도(安貧樂道), 안분지족(安分知足), 지족상락(知足常樂)이란 말이 있다. 어렵게 살면서도 그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거나 가난하지만 매사에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금언이다.

행복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조금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짊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시간이지 재화가 아니다. 두려워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놓치고 있는 현재인 것이다. 잘 사는 방법은 삶을 즐기는 것이며, 현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행복의 열쇠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대통령의 노화속도는 1년마다 2년 속도로 늙어간다고 한다. 백악관생활 8년이면 16년 늙어서 나온다. 올해 69세인 클린턴은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의원과 동갑이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한국대통령은 평균행복도가 5점 만점에 1.5점이고, 나폴레옹은 행복했던 날들이 불과 6일에 불과했다고 한다.

돈과 재산만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함을 주변에서 쉽게 본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현실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이는 늙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 했고, 70세 넘어서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쉬면 늙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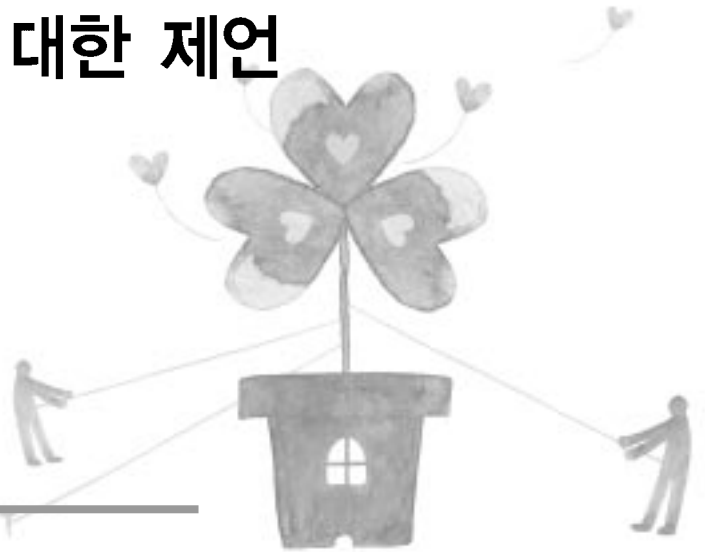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온다. 끝으로 이양하의 수필 ‘나무 중 ‘소나무와 진달래’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 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이 얼마나 멋진 비유인가. 우리 모두가 안분지족(安分知足), 지족상락(知足常樂), 안빈낙도(安貧樂道)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한다.



민선 5기 충남도와 민선 6기 정책에 대한 제언



박태구
중도일보 내포본부 차장



민선 5기 충남도는 도청사를 대전에서 내포신 도시(홍성·예산)로 80년 만에 이전하고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로써 초석을 다져왔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농혁신(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과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등 3대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3농혁신의 5대 전략과제별 주요 성과를 보면,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은 △10a 당 쌀 생산량(543kg) 전국 1위 △친환경 인증 면적 2배 증가 △도 대표 광역 쌀 브랜드 '청풍명월골드' 전문 재배단지 1,000ha 조성 및 전국 833개 대형매장 입점 지원 △산채재배단지 확대로 임업소득 증대 기반 구축 △4대 수산물(바지락·갯벌참굴·김·해삼) 명품화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혁신의 경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써 왔으며, 제로-100 프로젝트, 행정정보 공개, 직무성과 계약제·혁신대학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6월 열린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는 충남도의 행정혁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분권혁신 실현을 위해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 제고 및 지방분권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으며, 자치이카데미와 시범사업, 생활자치 정착 등에 노력해 왔다.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들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선 5기의 3대 혁신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 복지정책 등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을 꾀해야 한다.

민선 6기 출범 후에는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기반을 토대로 도정의 새로운 비전, 지표, 역점 시책 등 보다 발전적인 도정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대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지방자치 분권·행정혁신 추진 △도청 이전·사회 및 도시 인프라 구축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 개방 통상시대 대비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발굴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포신도시 자속기능 확충 등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비전 실현 등 환황해권 시대 '충남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안 항만 개발 등 충남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사업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포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정구역이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분리돼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 지역의 통합이 필요충분조건이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 수백명의 희생의 값으로 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 역시 '안전총괄과'의 담당관 승격 등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예산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도내에서는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게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룩했다. 때로는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 경제와 함께 복지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 중이다. 이런 시대에 사람 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복지정책의 틀도 바뀌어야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라 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수혜계층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필요한 곳 신청하세요”

— 연말까지 기초번호판 및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충남도는 도로명주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도로명판 2만 6,992개, 건물번호판 43만 3,236개 등 총 46만여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치위치 적정여부 훼손 및 누락여부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여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현황 등으로, 점검 결과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했다.

도는 일제점검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건물에 없는 장소나 버스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을, 교차로·이면도로·골목길에는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추가 설치해 정확한 주소찾기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도민들이 기존 안내시설이 훼손된 곳이나 추가 설치할 곳을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나 도로명주소팀(☎ 041-

635-2865)으로 알려주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새 주소체계”라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 주소 또는 찾고자 하는 주소는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27개 사업 신청

— 공동양식장 해상 종합 쉼터瀟諸光린 건립 등 148억 원 규모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유출 피해 지역에 대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모두 27개 사업 148억 3,000만 원(지방비 포함 202억 9,400만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신청 사업은 지난해 9월 열린 제3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18개 사업 중 국가 시행 1개 사업을 뺀 17개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 10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면, 보령 ‘삼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3억 5,000만 원, 서산 '공동 양식어장 해상종합 쉼터' 2억 1,000만 원, 당진 '전착장 태양광 가로등 건립 사업' 1억 500만 원 등이다.

또 서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 조성' 3억 원, 홍성 '어사항 해상가두리 낚시터 조성' 2억 원, '상항리 세척장 시설 조성' 2억 원, 태안 '해녀 휴게실 조성' 7억 2,000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8억 7,100만 원, 어민회관 건립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서산 '공동수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 15억 원, 서천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 사업' 10억 6,600만원, 태안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10억 원, 태안 '안면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5,000만 원 등은 계속 사업으로 신청했다.

도는 이번 신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정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호응이 부족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예산까지 반영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제6회 유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결정된 20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되고, 관광 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은 올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옛 관사촌, 문화·예술 공간으로

— 도, 대전시와 대부계약 체결...역사적 가치 보존·활용 힘쓰기로



충남도의 역사적 숨결이 커져이 쌓인 '충남도 옛 관사촌'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관사촌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5월 14일 대전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도는 관사촌을 대전시에 5년간 무상 임대하고, 대전시는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도와 대전시는 또 계약서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관리 원칙과 의무 이행 등을 담아 관사촌 보호를 위해 힘 써 나가기로 약속했다.

관사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사 건물들이 모여 '촌(마을)'을 이룬 곳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도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위해 조성됐다.

규모는 1만 355㎡(11필지)의 토지에 옛 도지사 공관을 비롯, 10개동(1,822㎡)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히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12년 말까지 사용돼 온 도지사 공관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거처로 사용하며 UN군의 참전을 공식 요청한 역사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지난 2012년 말부터 관사촌 10개 건축물을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사촌 매각을 위해 도의회 의결과 감정평가(76억 원)를 거쳐 일반에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매입을 타진해옴에 따라 매각 추진을 보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강창희 국회의장 제출안)에 관사촌도 국가가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개정안 처리 시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시에 대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번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대전시와의 상생 발전 토대 마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관사촌 훼손 예방, 연간 4,000만원에 달하는 경기용역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박범신 작가 초청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9일 연구원에서 박범신 작가를 초청해 “사람이 사는 4가지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충발연 개원19주년기념으로 마련한 오늘 자리에서 박범신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밀려 상상력과 사랑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며 “진정으로 행복해 지려면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발연도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때, 인문학적 통찰력을 더하게 된다면 충남의 정체성에 기반한 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범신 작가는 1946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여름의 잔해’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소

금', '은교', '소소한 풍경', '출라체'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김동리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남 고유의 농어촌자원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해야

— 5월 28일 충남발전연구,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 세미나' 개최



충남도 농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훌륭한 자원을 발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남발연)은 5월 28일(수) 오후2시 충남발연 대회의실에서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농어촌유산학회(회장 윤원근)와 공동 개최한 것이다.

농어업유산을 지정하는 제도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이 있다. 최근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도 밭담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충남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이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박사가 “농어업유산의 이해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를 설명하고, 명소IMC 황길식 대표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청산도 구들장논”을 소개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 김태연 교수, 충남발연 유학열 연구위원, 충남도 양장목 팀장, 한겨레신문 전진식 기자 등을 비롯한 각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충남의 농어업유산 후보자원에 대한 논의와 활용 방안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충남발연 유학열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촌개발의 패러다임은 지역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보전·계승해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농어업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도내 자원들을 발굴·보전·재평가해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전통적 농업시스템과 농촌생활시스템을 말하며, 핵심적 가치는 주로 생물다양성, 경관, 토지이용시스템 등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예산 사과 농장 봉사활동’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 충남 예산군 사과농장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충발연 임직원 90여 명은 각 조별로 사과 봉지 씌우기와 집순 따기 등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었다.

특히 이 지역 사과농장들은 사과 생산은 물론 사과로 만든 와인을 제조·유통·판매하고, 방문객 교육과 체험 등 충남의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이미 6차산업화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와 보니 앞으로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가을에는 저 사과를 수확하는 기쁨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상생발전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은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손혁재, 수원연)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교류사업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16일 수원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시·도민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무엇보다 연구과제의 공동협력,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정보 공유 등 정책의 연구와 개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을 비롯한 행궁동 마을만들기 선진사례를 둘러보며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비록 수원연이 설립된 지 14개월밖에 안됐지만, 인문사회와 도시환경 분야에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연구 노하우를 충남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